

기본연구  
2009-13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남 중소기업 지원방안

신동호 · 김세종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www.cdi.re.kr](http://www.cdi.re.kr)

기본연구  
2009-13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남 중소기업 지원방안

2009.12

충남발전연구원

ISBN : 978-89-6124-101-4 03350

기본연구 2009-13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남 중소기업 지원방안

신동호 · 김세종



## 발 간 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시장의 부실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양한 전달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중소기업은 내수침체와 신용경색으로 가동률과 업황이 크게 하락하였고 어음부도율 역시 급증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련하여 충남도 내 중소기업들은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상승과 원자재 가격급등요인을 가장 큰 경영애로요인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상시적인 경영애로를 가중시켜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어음부도율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원유 및 원자재가격 급등은 기업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외부적 충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더욱 취약해 그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경기대응력이 부족한 충남도 내 중소기업들이 겪는 애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물론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개입과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 합당하나, 충남도 차원에서도 국가시책과 연계하거나 나름의 시책을 강구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물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요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본원 신동호 박사,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세종 박사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유익한 자문에 응해주신 목원대학교 조연상 교수님, 공주대학교의 김우영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 용 응



# 연구요약

##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국내 중소기업은 내수침체와 신용경색으로 가동률과 업황이 크게 하락하였고 어음부도율 역시 급증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상승과 원자재 가격급등요인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상시적인 경영애로를 가중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율상승 및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충남도 차원의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요시장의 경제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이론과 관련 연구동향을 통해 고찰한 결과, 환율상승, 금리인상,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 요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금리, 환율, 원자재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기간을 분석한 결과, 먼저 금리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 충격 이후 1개월까지가 가장 컸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나, 7개월 이후에는 점차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충격 이후 1개월까지가 가장 컸으며, 10개월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와 나프타가격 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은 1개월까지가 가장 컸으며, 10개월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유연탄 가격 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은 3개월까지 계속 커지며, 10개월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동향을 분석한 결과, 해외 주요국들은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기극복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 및 개

정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감세 및 보조금 지원 조치를 통한 내수기반 강화 및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구제금융으로 활용하는 한편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책자금 확대 및 세제지원, 금리인하 조치, 유동성 지원 등 중소기업에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행하고 있다.

넷째, 도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은 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위험 관리지원 및 원자재 구매대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끝으로 환율 및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요인을 완화하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금번 경기침체의 주원인인 환율급등과 원자재 확보난을 도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환위험 관리를 위해 ①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한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② U-환율 컨설팅 지원단 신설·운영, ③ 환율관련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하였고, 원자재 확보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 원자재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②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 지원, ③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 3. 결론 및 정책 제언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전 세계적 경기둔화(global recession)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충남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은 충남지역의 경제성장에 제약요인(binding constraint)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역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생산적 활력 및 외부충격에 대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만 한다. 관련하여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은 경기대응력이 취약하여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충격은 중소기업의 상시적인 경영애로를 더욱 가중 시키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인해 환율,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일부 수출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내수중심의 중소기업 대부분은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경영난이 가중되어 부도의 위기로 내몰리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는 중소기업의 경기극복을 위해 경영애로해소 중심으로 시행되던 기존

지원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록 한시적이거나 지자체로는 최초로 '도 정책자금의 상환유예' 지원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도내 중소기업들이 급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가 환율상승과 원자재가격 급등이 주원인이라는 점과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및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충남도 나름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환율과 원자재 가격변수의 통제(control)는 국가정책영역이므로 지자체 차원의 통제가 원천불가하다. 따라서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개입과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 합당하나, 충남도 차원에서도 국가시책과 연계하거나 나름의 시책을 강구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환 위험관리를 위해 외환 전문가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환율 컨설팅을 해주거나, 환변동 보험과 같은 유용한 환헤지 수단을 수출보험공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홍보하는 일, 그리고 원자재 확보난 완화차원에서 업종별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일 등은 도차원에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다.

끝으로 기업회생제도의 사례에서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충남도가 운용하고 있는 기업회생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존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할만 하다.





# 차 례

제1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목적 .....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범위 .....	4
2) 연구방법 .....	5
3) 연구의 접근체계 .....	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8
1. 이론적 배경 .....	8
1) 환율변동의 전달경로 .....	8
2) 금리변동의 전달경로 .....	10
3) 유가 및 원자재 가격변동의 전달경로 .....	11
2. 선행연구 검토 .....	13
1)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13
2) 원유 및 원자재 가격변동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16
3)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1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0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및 지원방안 .....	21
1.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및 지원방안 .....	21

1) 미국 .....	21
2) 영국 .....	23
3) 독일 .....	26
4) 일본 .....	28
5) EU .....	29
6) 중국 .....	31
2. 국내 중소기업 정책동향 및 지원방안 .....	33
1) 부처별 정책동향 .....	33
2) 중소기업 지원방안 .....	35
3. 시사점 및 향후과제 도출 .....	39

####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남 중소기업 애로요인 및 지원실태 분석 ..... 42**

1.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실물현황 .....	42
1) 중소기업 산업활동 .....	42
2) 중소기업 고용 .....	43
3) 중소기업 금융 .....	44
4) 중소기업 경기전망 .....	45
2. 글로벌 금융위기가 충남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	47
1) 변수선정과 정규분포, 동분산, 안정성 검정 .....	47
2) 벡터오차수정모형에 의한 추정 .....	51
3. 충남 중소기업 애로요인 및 지원실태 분석 .....	60
1) 충남 중소기업 애로요인 조사 .....	60
2) 경기극복을 위한 충남 중소기업 지원사업 실태 .....	72
4. 정책적 시사점 .....	76

#### **제5장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남 중소기업 지원방안 ..... 77**

1.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탄력적 운용 .....	77
1) 경기대응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 및 규모 확대 .....	77
2) 기존 지원사업의 탄력적 운용 및 제도적 보완 .....	78
2. 환율변동성 및 원자재 확보난 개선방안 .....	78

1) 환위험 관리 지원방안 .....	78
2) 원자재 확보난 개선방안 .....	81
 <b>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b> .....	 84
1. 요약 및 결론 .....	84
2. 정책제언 .....	85
 <b>참고문헌</b> .....	 92

## 표 차 례

<표 1-1> 문헌조사 주요내용 및 방법 .....	6
<표 1-2> 설문조사 설계 내용 .....	6
<표 2-1> 전달경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사항 .....	19
<표 3-1> 2009년 부처별 주요 정책추진 실적 및 2010년 계획 .....	34
<표 3-2>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요 중소기업 대책 .....	37
<표 3-3> 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38
<표 3-4> 글로벌 금융위기에 다른 국내외 중소기업 지원정책 비교 .....	40
<표 4-1> 제조업 산업활동 추이단위 .....	43
<표 4-2> 중소기업 고용 추이 .....	44
<표 4-3> 충남 제조업 고용 추이 .....	44
<표 4-4> 중소기업 대출잔액 및 연체율 .....	45
<표 4-5> 중소기업 자금사정(어음부도율) .....	45
<표 4-6> 중소기업 실적 SBHI .....	46
<표 4-7> 시계열 자료 내용 .....	47
<표 4-8>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 .....	49
<표 4-9> 단위근 검정결과 .....	50
<표 4-10> 2변수 VAR적정시차 검정결과 .....	53
<표 4-11> 2개 변수의 공적분 검정결과 및 장기균형식 .....	54
<표 4-12>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의 추정결과 .....	57
<표 4-13> VECM 추정결과 .....	58
<표 4-14> 각 변수 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충격반응함수 추정 결과) .....	58
<표 4-15> 설문조사 개요 .....	60
<표 4-16> 표본의 일반적 특성 .....	61
<표 4-17> 경기침체가 기업에 미친 영향(업종별) .....	63
<표 4-18> 경기침체가 기업에 미친 영향(업력) .....	64

<표 4-19> 향후 경제여건 전망 .....	67
<표 4-20> 원자재 수급사정(마케팅) .....	70
<표 4-21>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한 애로요인 .....	71
<표 4-22> 경기극복을 위한 충남 중소기업 지원사업 .....	75
<표 5-1> 주체별 환위험 관리방안 .....	81
<표 5-2>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한 주체별 지원방안 및 역할 .....	83

## 그림차례

[그림 1-1]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2
[그림 1-2] 동태적 계량분석 프로세스 .....	5
[그림 1-3]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	7
[그림 2-1] 환율변동의 전달경로 .....	9
[그림 2-2] 금리변동의 전달경로 .....	11
[그림 2-3]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의 전달경로 .....	12
[그림 2-4] KIKO의 손익구조 .....	18
[그림 4-1] 제조업 생산 및 출하지수(전국) .....	42
[그림 4-2] 제조업 생산 및 출하지수(충남) .....	42
[그림 4-3] 재고지수 및 중소제조업평균가동률(전국) .....	42
[그림 4-4] 제조업 재고지수(충남) .....	42
[그림 4-5] 중소제조업 고용 추이 .....	43
[그림 4-6] 충남 제조업 고용 추이 .....	43
[그림 4-7] 대출잔액 및 연체율 .....	45
[그림 4-8] 자금사정(어음부도율) .....	45
[그림 4-9] 자금조달사정 실적 SBHI .....	46
[그림 4-10] 원자재조달사정 실적 SBHI .....	46
[그림 4-11] 생산설비수준 실적 SBHI .....	46
[그림 4-12] 경기전반 실적 SBHI .....	46
[그림 4-13] 중소기업 어음부도율과 금리, 환율, 원유 및 원자재가격 추이 .....	48
[그림 4-14] 변수검정 및 모형설정 과정 .....	51
[그림 4-15] 중소기업 어음부도율과 금리, 환율 및 원자재가격 변수간 공적분 관계 .....	54
[그림 4-16] 충격반응함수의 추정 .....	59
[그림 4-17] 설문대상기업 업종 .....	61
[그림 4-18] 경기침체 정도 .....	62

[그림 4-19] 경기침체가 기업에 미친 영향 .....	63
[그림 4-20] 경기침체가 경영애로에 미친 영향 원인 .....	64
[그림 4-21] 기업외적요인 .....	65
[그림 4-22] 기업내적요인 .....	65
[그림 4-23] 경기침체원인 .....	66
[그림 4-24] 기업경영애로의 직접적 원인 .....	66
[그림 4-25] 고환율에 따른 가격경쟁력 변화 .....	68
[그림 4-26] 고환율 지속시 애로요인 .....	68
[그림 4-27] 고환율 지속시 정부대책 .....	69
[그림 4-28] 원자재 수급사정 .....	69
[그림 4-29] 원자재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	71
[그림 4-30] 원자재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정부대책 .....	72
[그림 5-1] 환위험 관리시스템 .....	79
[그림 6-1] 경기침체극복을 위한 충남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정책적 활용방안 .....	87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연구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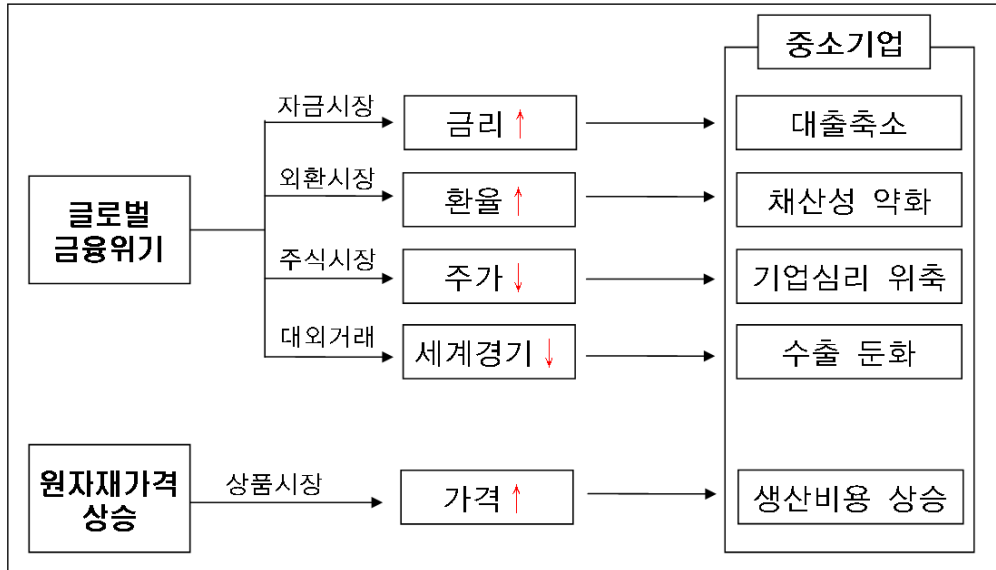
**대외 경제환경 변화**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제전반에 악영향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시장의 부실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에도 예외 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경기에도 매우 민감하게 동조화 되어 있는 실정으로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는 매우 복잡·다양하나, 금리, 환율, 주가 및 세계경기 등의 주요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시장에서는 외화 및 원화의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권은 안전위주의 자산운용을 할 수 밖에 없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자금경색으로 인해 국내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져 금리가 인상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현상과 달러위주의 시장으로 인해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변동성도 더 크게 나타난다. 결국 환율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국내 내수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 셋째,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주식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주가급락과 변동성이 확대되어진다. 이는 국내 소비 및 기업 심리를 냉각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둔화 및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하락하게 된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리, 환율, 주가 등을 통해 국내 소비와 투자, 고용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경기 침체를 유발함으로써 수출둔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원유 및 원자재에 대한 투기수요를 유발시켜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였

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기업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특히, 규모가 영세할수록 그 대응력은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림 1-1]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 애로요인

자금조달여건 악화, 원자재 확보란, 채산성 악화, 기업심리 위축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들이 겪는 애로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와 자금경색으로 인한 금리인상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환율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국내 내수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시키며, 주가하락은 국내 소비 및 기업심리를 냉각시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다. 이러한 기업심리와 소비심리의 위축은 국내경기의 둔화로 이어지고, 여기에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요인이 더해져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과 이로 인한 내수침체는 중소기업의 생산둔화를 야기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중소기업은 내수침체와 신용경색으로 가동률과 업황이 크게 하락하였고 어음부도를 역시 급증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제원자재가격 급등과 수급불안정으로 중소기업은 막대한 생산차질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데, 이는 독과점 원자재 공급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상승에 기인한

다. 특히, 납품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 반영이 어려워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의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영향조사(중소기업 중앙회, 2009.6)’에 따르면 환율변동에 인해 전체 응답자의 57.9%가 채산성이 악화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충남도 내 중소기업들에게도 예외 없는 것으로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환율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상시적인 경영애로를 가중시켜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어음부도율로 나타났다.

## 2) 연구의 필요성

경기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 시급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원유 및 원자재가격 급등은 기업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외부적 충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중심의 지역산업구조를 가진 충남의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기업환경은 더욱 열악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충격에 대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흡하다. 즉, 경기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외부충격으로 인한 경기둔화 시 자금조달여건 및 채산성이 악화되어 도산의 위기에 내몰리는 등 경영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더욱이 경기침체 시에는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상시적인 경영애로정도를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다시 말해, 경기대응력이 부족한 충남도 내 중소기업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애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대외적인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요인을 완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이에 따른 환율불안정, 원유 및 원자재가격 급등과 같은 대외적 환경변화는 국내 경기침체를 야기하는 외부충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적 충격이 도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계량모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경기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환율변동성 증대, 원유 및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겪는 다양한 애로요인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해외 주요국들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동향을 파악하여 벤치마킹요인을 도출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대응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충남 도내 중소기업들의 동향을 생산·출하·재고지수 및 가동률, 어음부도율 등 실물지표를 통해 살펴보고, 충남도의 실물경기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수립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의 금융위기 및 원자재가 상승 등의 요인이 실물경제로 파급되어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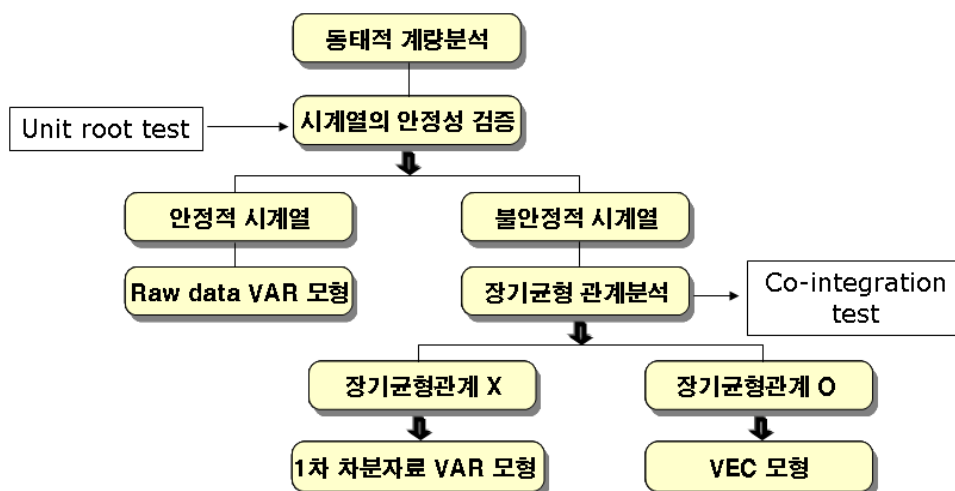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요시장(자금시장, 외환시장, 주식시장, 상품시장, 대외거래 등)의 경제변수들에 미치는 영향 즉, 전달경로를 기존이론과 관련 연구동향을 통해 고찰하게 된다. 아울러 금리, 환율, 주가, 원자재가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변동성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금리, 환율, 원자재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도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실증분석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가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이들 변수의 급격한 변동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데, 이에 대한 대응변수(proxy variable)로 중소기업 어음부도율을 사용하기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촉발된 금리, 환율, 원자재가격 변수의 급격한 변동이 중소기업의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기간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외 주요국

들과 국내의 지원정책 및 동향을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충남도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의 문제점과 벤치마킹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끝으로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최근 환율,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변동으로 인해 가중된 경영애로요인 및 개선방안을 현장에서 의견수렴한 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 실증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정도 및 기간분석

본 연구에서 환율, 금리, 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중소기업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제 1단계로 분석에 이용될 시계열 변수들의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실시한다. 제 2단계에서는 안정적 시계열로 판명되면 가공하지 않은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는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on, VAR)을 활용하거나, 혹은 불안정적인 시계열일 경우, 변수간 장기균형 관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을 실시한다. 제 3단계에서는 변수간 장기균형이 존재하면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분석모형으로 이용하고, 만일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1차 차분한 VAR 모형을 이용한다.



[그림 1-2] 동태적 계량분석 프로세스

제 4단계에서는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IRF)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상승,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요인이 도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기간을 분석한다.

#### ■ 문헌조사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및 지원방안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수단과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실태를 조사한다.

<표 1-1>문헌조사 주요내용 및 방법

구분	주요내용 및 방법
국내외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중소기업 지원방안 분석</li> </ul> </li> <li>· 추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검색 등</li> </ul> </li> </ul>

#### ■ 설문 및 면담조사 : 도내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전문가 대상 면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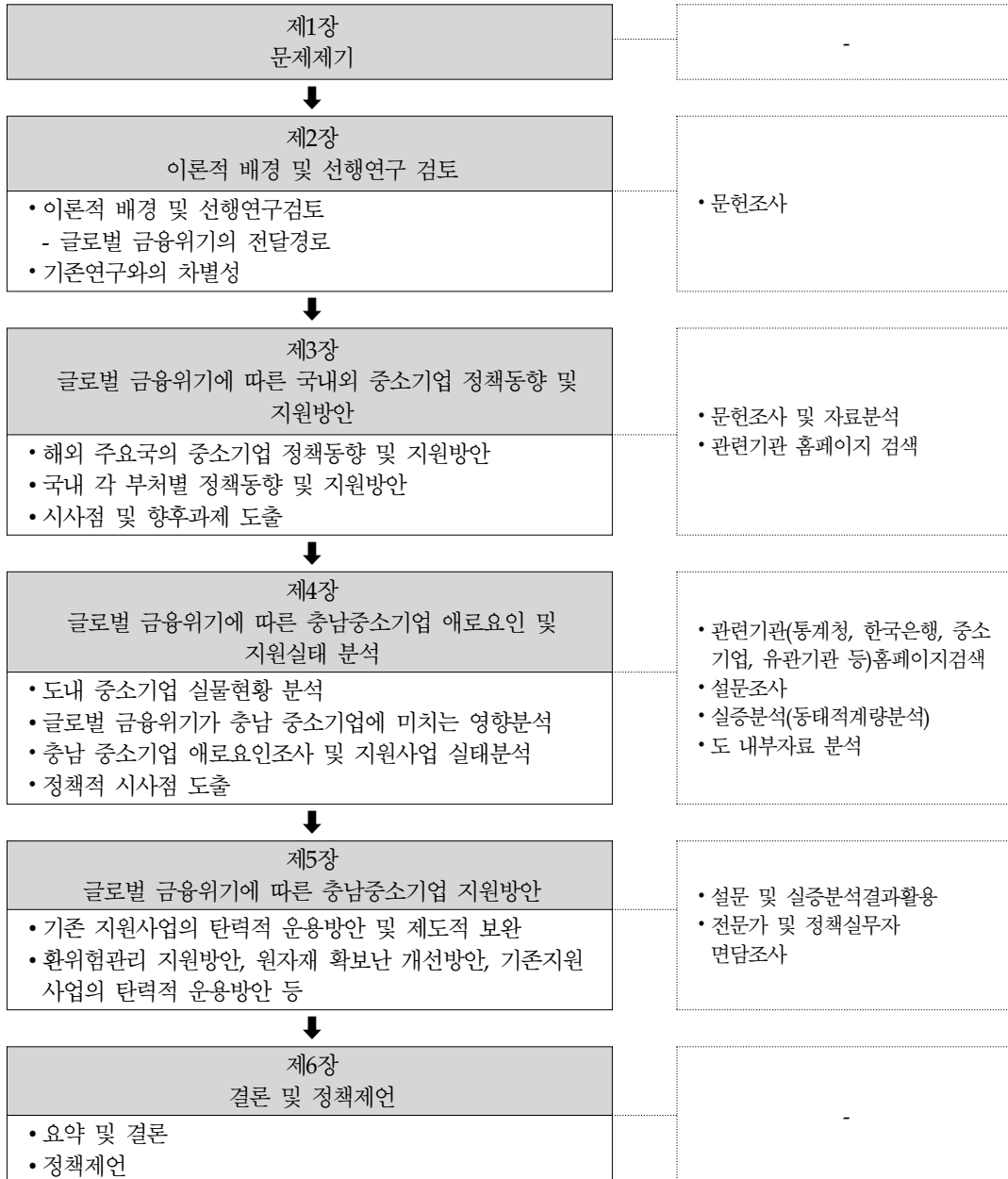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요인이 무엇인지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애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한다.

<표 1-2> 설문조사 설계 내용

구분	조사설계 내용
조사목적	· 환율,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요인 의견수렴
조사대상	· 도내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
조사규모	· 사전조사 이후 총 423개 업체 표본선정
조사방법	· 우편조사
주요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침체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체감 정도</li> <li>· 고환율에 따른 애로요인 및 완화방안</li> <li>· 원자재가격에 따른 애로요인 및 완화방안</li> </ul>
조사일정	· 2009. 8월~9월

### 3) 연구의 접근체계

#### ■ 연구의 수행방법



[그림 1-3]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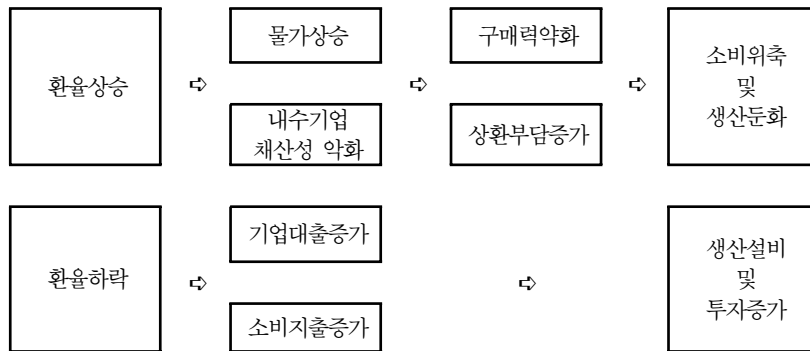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이론적 배경

#### 1) 환율변동의 전달경로

환율변동은 한 나라의 경상수지, 물가,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폭 넓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환율상승은 수출가격경쟁력을 높여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수입물가의 상승을 초래하여 국내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환율변동은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경로는 수출입 증감을 통한 경상거래 경로 이외에도 기업의 대외 채권 및 채무의 환산금액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환차익 등 자본거래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변동하면 수출입단가와 수출입 물량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출입 기업의 채산성과 매출액은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달러표시 수출단가와 수입단가의 조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출기업에게는 수출액을 증가시키거나 채산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수출단가를 조정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해외수출기업과 국내 수입기업은 수입상품의 국내 매출량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채산성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수입단가를 조정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 2-1] 환율변동의 전달경로

### ■ 원화표시 원자재 혹은 완제품 매입/매출

이 경우, 매출 및 매출원가에는 환율변동의 영향이 없다. 매출을 했을 경우 계약시점의 환율과 매출 후 거래 종결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거래적 환위험의 존재하며, 실현된 외환차손익은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되며, 관리회계 목적에서는 매매목적이 아니고 위험회피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판매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결산시점에서는 외화매출채권에 대하여 환산손익이 발생된다.

### ■ 달러화 원자재 혹은 완제품 매입/내수매출 거래

이 거래는 매출원가, 외환차손익 및 외화환손 손익계정이 영향을 받는다. 표준원가 계산제도하에서 필요한 원자재 혹은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 표준원가 계산시 환율과 구매시점에서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구매단가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것은 실제가격이 인상 또는 하락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가격차이와도 같은 개념이지만 실제로 가격이 변동된 것이 아니고 환율변동에 기인되었기에 가격차이와 구별하여 구매가격차이(Purchase Price Variance, PPV)로 정의된다. 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구매가격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가감되어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차이는 시간적 차이로서 매출발생시 상쇄되는 효과를 가져오기에 당기 매입액이 당기에 전액 매출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당기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고 2기 이상 결산기를 거쳐서 매출이 발생될 경우에는 특정기간에는 손익에 영향이 없다. 비용계정에서는 매입채무를 결제하는 일자의 환율에 따라서 실현된 외환차손익이 발생되고, 결산시점에서의 외화매입채무 잔액에 대해서는 환산손익이 발생된다.

기업의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환율의 가격전가(Pass-through)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데, 수출가격 전가도란 환율하락시에 수출기업이 환율하락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율상승시에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수익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얼마만큼 수출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때 수출가격 전가도는 수출상품의 시장지배력, 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정도, 원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 등 수출품의 수요, 공급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력이 높은 상품일 경우, 수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환율하락시 수출가격 전가도는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세계시장에서 경쟁정도가 심할수록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수요감소 정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가격 전가도는 낮을 것이다. 한편, 원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품일수록 환율상승 시 생산비용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여력은 감소되며 그 결과 수출가격 전가도는 낮을 것이다. 이렇듯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환율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2) 금리변동의 전달경로

금리변동은 자본축적을 위한 저축과 기업의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에 연계되어 실물경제의 과열된 경기진정과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금리의 상승은 실물부문에서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되어 경기를 진정시키게 되지만, 금리의 하락은 가계의 저축유인을 낮춤으로서 소비지출의 증가와 기업의 자금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이 낮아지게 되어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에 따라 실물경제에 대한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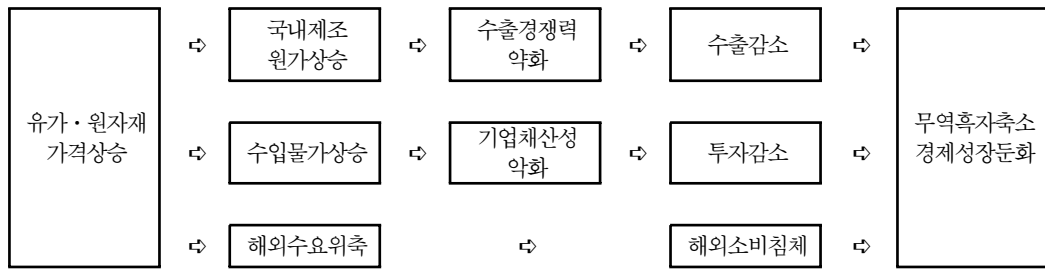
[그림 2-2] 금리변동의 전달경로

또한 금리의 하락은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동가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금리하락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커져 토빈의  $q^1$ 과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기업이나 개인은 설비투자와 소비지출 증가를 유발하게 되어 경기가 활성화되며, 또한 실물자산인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부의 효과에 의해 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주택가격의 상승은 가계신용 증가를 야기해 가계부채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3) 유가 및 원자재 가격변동의 전달경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변동은 환율변동과 마찬가지로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가격변동은 생산원가상승과 해외 수요위축을 유발시켜 수출을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원유 및 원자재 수입단가의 상승은 수입을 증가시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 설비투자의 동향을 설명하는 지표로 미국 예일대 토빈 교수가 개발한 개념이다. 기업이 실시하는 설비투자가 얼마나 이윤을 나오게 하느냐라는 개념으로 기대이윤(期待利潤)을 설비자금의 조달비로 나눈 것이다. 실제로는 주식의 시가총액과 부채의 합계가 기업의 장래이윤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산의 시가평가액을 설비개신의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양자의 비율을 구하여 산출한다. 이 비율이 1보다 작으면 기업에는 투자할 자극이 생기지 않고 1보다 크면 투자의 자극이 생긴다.



[그림 2-3]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의 전달경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과 같은 대외적 충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그림2-3]에서 보듯이 무역수지의 변동을 통해서 이다.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이 수출, 수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생산원가를 상승시키며, 외국의 해외수요를 위축시켜 수출을 감소시킨다. 또한 원유 및 원자재의 수입단가를 상승시켜 수입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수출감소 및 수입증가는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 2. 선행연구 검토

### 1)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9년 9월 14일 미국 4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메릴린치가 매각된데 이어 동월 16일 AIG의 구제금융 요청 등으로 미국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은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는 물론 과잉 유동성이 미국 내로 유입되는 구조하에서 규명되어 질 수 있다. 먼저, 경상수지 적자는 달러의 해외 유출을 가져오고, 다시 해외로부터 미국에 유입되는 달러의 유동성 확대는 저금리를 야기하였고, 투자자로 하여금 저금리 차입에 의한 고수익률 위험자산에의 투자를 가능케 하였다. 또한 투자은행들에 대한 규제완화와 이들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무분별한 거래확대는 과대한 신용확대를 가져와 자산가격의 거품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글로벌 신용경색 상황

- 1단계(2007.8.9일~10월초) : BNP Paribas 펀드 환매중단 조치
- 2단계(2007.10월 중순~12월) : 대형 금융기관들의 손실 발표
- 3단계(2008.1월~2월 하순) : 대형 금융기관들의 손실확대 및 미국 경기침체 우려
- 4단계(2008.2월말~5월 중순) : Bear Stearns사 등의 유동성 위기 발생
- 5단계(2008.5월 하순~9월 초순) : 금융권의 추가 손실확대 우려
  - 미국 양대 모기지 금융기관 Fannie Mae 및 Freddie Mac 자본 부족 우려(7.7일)
- 6단계(2008.9월 중순~현재) : 대형 IB 파산 등 신용불안 확산
  - Lehman Brothers 파산보호 신청(9.14일), BOA의 Merrill Lynch 인수(9.14일)
  - FRB, AIG 자금 지원(9.16일, 현지시간)

자료: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원(2008)

이러한 미국발 금융시장의 불안은 세계 실물경제에의 침체우려, 금융부실규모에 대한 의구심과 신뢰상실, 자산가격의 급락 등으로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관련하여

송치승(2008)은 자금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경제상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렸다. 먼저 우리나라의 자금시장을 IMF 구제금융 당시와 비교하며, 그 때와는 달리 기업의 부실수준이 낮고 금융부실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구조라 하였으며, 국내 주식시장은 달러가치 상승에 의한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 경기침체 우려, 외국인의 순매도 지속 등으로 급락을 지속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외환시장의 경우는 경상수지의 적자지속, 은행의 해외차입금의 상환, 외국인의 순매도 등으로 국내외환시장에서의 달러는 초과수요 상태로 경상수지의 흑자전환과 외투자금의 유치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우리경제는 미국 발 금융불안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물가불안, 소비와 투자부족, 경제산업 구조변화에 의한 저고용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 바,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한층 어려워 질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러한 금융불안은 우리 경제를 장기불황으로 떨어트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특히, 비상경제상황에 대비하여 준비와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은행의 유동성 부족우려가 대출중소기업의 자금회수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행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건전 중소기업의 자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향후 유동성 부족을 야기한 은행들의 경영행태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감독기관차원의 사후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융기관이 워크아웃을 활용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구조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구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신생 기술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벤처캐피탈이 직접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의 M&A에 의한 투자회수를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회생특례자금 300억원은 중소기업 실정을 감안할 경우, 매우 부족하므로 지원규모를 충분히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의 현물출자는 해당은행의 형식적인 대출여력만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으로 현물출자 대신 현금출자를 통해 실제 유동성 공급에 의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바젤Ⅱ가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준비는 미흡하므로 향후 차주의 신용도별로 소요자기자본 확충이 요구되는 바젤Ⅱ의 연기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sup>2)</sup>

2) 신BIS협약(바젤Ⅱ)은 기존의 자기자본 산정에 있어서 신용리스크의 측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운영리스크를 측정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신용과 운영리스크 각각에 대해 정교한 정도가 점차 높아지는 리스크 측정방법을 3개씩 제시하여 은행이 선택토록 하였다.

한편, 정남기(2008)는 미국 발 금융위기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중소기업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선 미국발 금융위기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리먼 브라더스, 메릴린치 등에 대한 투자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준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서브프라임 사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단기충격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을 정리하고 시스템 기반을 재정비하는 긍정적인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자금경색으로 인해 대출축소와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는 은행권의 안전위주의 자산운용이 예상되어져,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가게 및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축소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이며, 특히,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경색으로 인해 국내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달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은행권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는 것이다.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신용경색 심화로 인한 국내 외화 유동성 사정의 악화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되어지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신인도 실추와 재정적자의 확대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원화의 약세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약한 것이 아니라, 국제 유동성 충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며, 다만, 국내투자 해외펀드본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펀드의 급격한 해외유출로 인한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의 동요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미국금융시장 불안요소의 불씨는 남아 있어 추이를 지켜보아가면서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자금조달에 제약이 커질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침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번 사태가 미국금융시장에 뿌리 깊은 불확실성의 현실화를 통해 미국경제의 실물시장이 영향을 받고 교역관계를 통해 미국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우리경제도 장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은 전 세계로 전가되어 세계적인 장기침체가 유발될 수 있는데, 특히, 미국경제와 관련이 깊은 우리나라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사태로 은행들이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가게 및 기업대출의 회수를 시도



하는 경우 국내경제가 패닉상태로 갈 수 있음 우려하였다. 한편, 장기침체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예상하였다. 즉, 세계경제가 안정세를 유지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세계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등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축통화의 대량방출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정부의 대규모 금융구제의 선언은 달러의 대량 방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는 세계화폐의 증가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며, 간접적으로는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이 국제교역관계를 통해 다른 나라로 전가될 수 있는데 달러화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2) 원유 및 원자재 가격변동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 국제원유 및 원자재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그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유뿐만 아니라 유연탄, 소맥, 전기동, 대두, 철광석 등 6개 품목이 가격급등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국내경제는 수입품목 중에서 원유 및 원자재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수입의존도 역시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가격급등은 국내물가 및 수출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최근 들어 산업생산 및 가계소비에 필수적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경상수지 악화, 물가상승, 실질구매력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수입단가의 상승은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폭을 축소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위축과 경제성장을 둔화로 이어진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분을 내수 및 수출가격에 전가할 수 없으므로 채산상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관련하여 이지훈(2008)은 IMF 상품가격지수의 급등을 주도한 6개 품목 중 상품부문별로 가장 기여율이 큰 원유, 소맥, 전기동과 철광석을 대상으로 가격급등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급보다 투기자금, 달러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투기 및 달러화 약세요인은 평균적으로 최근 4대 품목의 가격급등에 56.5%나 기여하고 있으며, 원유는 투기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달러화 약세 및 수급 등의 순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전기동은 달러화 약세, 수급, 투기자금 및 광산과업 등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며, 선물시장이 없는 철광석의 경우, 달러화 약세, 중국의 수입증가, Big3 업체의 시장지배력 등의 순서로 영향

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 등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의 가격상승은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저하와 기업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투자위축을 통해 경제성장은 제약한다고 보았다. 전기동과 철광석의 가격급등 역시 기업의 제조원가 부담가중 등을 통해 생산자 물가를 상승시켰고, 소맥의 가격급등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제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간 거시계량분석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유가가 배럴당 16.5달러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1.07%p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0.36%p 상승하며, 국내 철광석 가격은 2008월 2월 중 전년 동월 대비 18.4% 상승해 생산자 물가가 6.8% 상승하는데 0.6%p 기여하며, 소맥 관련 주요 7개 제품들의 가격상승만 소비자 물가를 0.14%p 상승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임용택(2009)은 유가상승이라는 비용충격에 의한 물가파급경로의 실증분석을 통해 물가안정 및 경기침체 최소화를 콜금리 조정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가 및 원자재가격은 소비자물가에 강한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가와 원자재가격 및 물가상승은 경제성장을 하락의 요인이 되고 콜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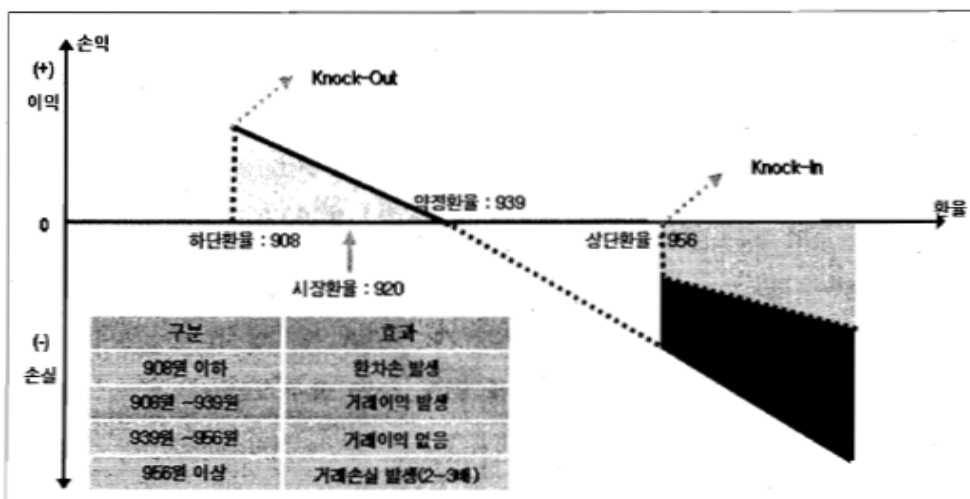
### 3)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남기(2008)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해 국내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리스크경영체제로 돌입할 경우, 자금 경색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이 감소하고 금리는 인상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중소기업들의 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글로벌 위험자산 기피현상으로 인한 은행들의 신용평가 강화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로 인해 외자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된 다는 것이다.

반면, 수출기업에게는 다소 유리한데, 이번 사태로 인해 외국투자자들이 자본을 유출하여 환율이 상승된다면 수출기업에게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여파로 세계의 구매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수출기업의 매출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KIKO관련 수출기업의 피해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글로벌유동성 축소로 인한 경기침체로 매출실적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유동성축소로 인한 전방위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매출 실적(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의한 원자재가격 상승의 부담도 간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으로 첫째, 신용등급 개선을 위한 투명성 및 자기자본 확충과 은행과의 관계 유지가 요구되는 바,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자금경색 및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대출심사 강화에 대비한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급격한 환율 변동위험 해지를 위한 환변동보험의 활용을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정세는 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안정되면 다시 수익률이 높은 한국 자본시장으로의 급격한 자본유입으로 인해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며, 환헷지를 하지 않더라도 KIKO와 같이 위험성향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의 이용은 자제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sup>3)</sup>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자금관련 현안보고'(2008)

[그림 2-4] KIKO의 손익구조

3) KIKO(Knock In Knock Out)는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의 폭이 달라지는 외환파생상품이나, KIKO가 가지고 있는 위험은 환율이 약정범위 중 상한선인 Knock In 환율 위쪽으로 올라선 경우, 계약금액의 두 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행사환율로 매도해야 해 환율이 올랐음에도 손실이 발생하며, 또한 하한선(Knock Out) 아래로 내려갈 경우 환율하락의 부담을 떠나는 구조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대·중소기업의 키코 손실 금액은 1조억원에 육박한다(\* 39개 대기업 2,460억원, 480개 중소기업 7,200억원여원).

<표 2-1> 전달경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사항

연구자	분석 대상	방법론	분석 및 예측결과	정책대안
김화년(2008)	원자재	사례분석	투기수요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변동	자원개발 전문 기업 육성 꾀
송치승(2008)	자본 환율	사례분석	자금, 자본,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로 인한 국내경기의 장기침체 우려	유동성 공급 워크아웃 활용 회생자금 확대
이지훈(2008)	원유 원자재	거시계량 분석	원유 및 원자재가격 급등 → 중소기업 채산성 악화 유가 16.5% 상승시 경제성장률 1.07%p 하락, 소비자 물가 0.36%p 상승	-
이창민(2008)		사례분석		
장재철(2008)	자금, 외환시장	사례분석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 투자, 수출 둔화 및 고용과 성장 악화 전망	경기활성화 (policy-mix)
정남기(2008)	자금시장	사례분석	금융위기가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실물경기 악화 전망. 다만, 글로벌 신용경색 심화(단기적) 및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	해외자금조달 꾀
김동수(2006)	환율 유가	VAR 모형 (계량분석)	전체 제조업에 차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충격 미침	산업구조 고도화
송경석(2007)	유가	VECM (계량분석)	유가변동 → 수출경쟁력 악화 및 경제성장 교란	유가충격 흡수 (제도적 장치)
임대봉(2008)	자금시장	VAR 모형 (계량분석)	금리변동 → 주가 및 소비자물가에 영향력 큼	경제분석기능 확충
조택희(2009)	전달경로	사례분석	유가상승으로 인해 충북지역경제성장 둔화전망	원자재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수요처 발굴
임용택(2009)	전달경로	ECM (계량분석)	유가 및 원자재가격은 소비자 물가와 강한 상관관계 有 경제성장률 하락의 한 요인으로 파악	-

또한 소비심리 위축에 대비한 재고 및 생산 관리는 판매추이를 지켜보며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응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의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에 대비한 보증규모 및 정책금융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은행의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방지하겠다.”고 중소기업 지원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시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 급락하는 환변동에 대비하여 불안정한 파생금융상품의 활용보다는

안전한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활용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되는 데, 이를 위해서는 환변동보험 수수료 절감과 파생상품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의 환변동위험 헷지의 반대포지션을 취하는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주로 해외교란 요인 즉, 대외적 충격이 산업 및 국내경제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외적 충격에 따른 국내의 대응방안 모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방법론에 있어 전자는 대외적 충격의 양태를 규명하기 위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을 채택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 및 설문분석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해외교란요인(개별변수)의 거시적 영향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분석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해외교란요인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정성적 영향을 동태적 계량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정량화하는 시도를 하였다. 다시 말해, 금리, 환율, 유가 및 원자재가 등 주요 경제변수들의 충격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및 지원방안

### 1.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및 지원방안

#### 1) 미국

##### (1) 정책동향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업체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하는 최종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강화안은 중기청의 '집행권(enforcement authority)'을 강화하고 위험 평가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대출회사(SBLC)·인증개발회사(CDC)·소액대출중개업체(Micro loan Intermediary)·전국기술지원제공업자네트워크(NTAPN) 등 SBA 대출업체와 파트너업체에 대한 감독 및 집행 활동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이다.

강화안 외에도 인증개발회사(CDC) 등 중기청 대출보증 시책에 동참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중소기업 대출상환을 3개월 연장할 것과, 대출업체들에게는 금융변수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대출 요건을 강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단기자산유동화증권시책(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TALF)'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청이 보증하는 중소기업 대출을 포함한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y: ABS)' 시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 (2) 중소기업 지원방안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실물경기가 침체되자 미 의회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및 소비자/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통한 소비촉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08년 긴급경

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EESA)'를 통과시켰다. 2008년 긴급경제안정화법은 향후 2년간 금융기관에 2,5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단기금융시장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500억 달러를 투입하여 2009년까지 머니마켓펀드(MMF) 원금 지급, 공적자금의 보험회사 투입을 검토하며 은행간 거래를 보증하고, 예금자 보호 상한을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ESA 구제금융 자금규모는 소비자 금융지원 3,500억 달러, 재무부 자율집행 2,500억 달러, 대통령 승인 소비자 금융지원 1,000억 달러로 총 7,000억 달러이다. 소비자 금융부문에 공적자금이 집중된 것은 소비 부분이 정상화되어야 장기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재무부는 특정 상황에 맞는 사례별 절차를 통해 EESA에 관심이 있고 중개기능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금융중개업체(financial agent)'를 선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EESA에 따른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중개권(Financial Agent Authority: FAA)과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에 특정 계약을 배정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완전공개 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 중소기업이 EESA에 따른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실질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으며, EESA 구제금융과는 별도로 '단기자산유동화증권시책(TALF)'을 도입하고 SBA 대출 보증,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에 총 2,000억 달러를 투입하였다.

새 행정부의 오바마 대통령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자본소득세율을 면제하고 인터넷 과세를 항구적으로 유예하며, 창업네트워크 구축에 매년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미 중소기업청(SBA)은 2008년 10월 '기업가정신과 중소기업주들을 위한 기회와 도전(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Owner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로 출범한 행정부에 중소기업과 관련한 5대 정책 과제와 5대 기회를 설명하는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5대 정책 과제는 경계 활성화, 조세와 규제에 대한 영향 분석, 보건보험 비용 인하 및 보장 범위 확대, 숙련 노동력 유치 및 유지, 글로벌 경쟁에 대한 대처 등이며, 5대 기회는 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 증가, 기업가 중심 경제성장 전략 확산, 해외 신시장 개척, 여성 및 소수민족 기업 증가, 선진 교육과 훈련 등으로 이를 염두에 두고 급변하

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하여 중소기업 창업·육성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2) 영국

### (1) 정책동향

영국 정부는 NHS 트러스트를 비롯한 지역기관과 공공부문이 거래 기업에 10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업지권기관인 비즈니스링크는 금융위기 상황 하에서 문제점 및 생존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는 '헬스 체크(Health Checks)'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등의 현금흐름과 자금조달 및 임직원 훈련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지역개발청(RDA)'를 통해서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도산되지 않도록 직접 대출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전예약보고서(Pre-Budget Report)'에서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재무부는 다양한 조세감면 조치로 납세자들에게 약 42억 파운드 상당의 세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부가가치세(VAT)와 연료세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규제개혁부(BERR)은 중소기업대출보증제도(Small Firms Loan Guarantee Scheme: SFLGS) 운영을 통해 공적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자산이 없는 기업도 25만 파운드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 중소기업연합회(FSB)는 10억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으로 정부에 제안하였는데, FSB는 유럽투자은행(EIB)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중소기업보증대출(Small Firms Loan Guarantee: SFLG)' 계획에 따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은행에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등의 정부의 현금흐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책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영국 기업들은 경기침체의 상황 속에서 기업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엔터프라이징 플레이시스 네트워크(Enterprising Places Network: EPN)'를 구축하여 다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EPN은 기업활동을 통해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역을 변화시킨 기업들의 네트워크로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장소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팟캐스트(podcast)', 온라인 토론포럼 등이 있다.



## (2) 중소기업 지원방안

영국의 중소기업은 영국 경제성장의 토대로, 영국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비롯된 실물경제 악화 속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긴급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하였으며, 균형재정 원칙을 폐기한 가운데 200억 파운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사전예약보고서(Pre-Budget Report)'를 통해 발표하였다. 지역개발청(RDA)를 통해서도 정상적인 중소기업이 파산되지 않도록 직접 대출하고, 현금흐름과 자원조달 및 임직원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공기업은 거래 대금을 10일 내로 결제하고, 기업지원기관인 비즈니스링크는 생존 가능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는 '헬스 체크(Health Checks)' 서비스를, 신용관리연구소(Institute of Credit Management: ICM)는 부채관리와 신용보험 등의 금융정보를 무료 제공하며,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 프라워스 정책센터(Women's Prowess Policy Centre: WPPC)'를 설립하였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실물경제 침체로 악화되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악화되고 성장세가 급락하는 등 영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영국 정부는 재무부를 통해 자금 지원, 세제·규제 개혁, 노동 역량·혁신 제고 등 기업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0억 파운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사전예약보고서(Pre-Budget Report)'를 통해 발표하였다. 영국 정부는 중소기업이 단기 현금 흐름 유지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지역개발청(RDA)을 중심으로 대출을 보증하는 10억 파운드 규모의 '중소기업금융제도(Small Business Finance Scheme)'를 2009년 초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상업은행이 중소기업 운전자금·투자수요 대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8년에 종료된 '고정률수출금융제도(Fixed Rate Export Finance Scheme)'를 1년 연장토록 하였다.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행대출기금(Transition Loan Fund)'과 유사한 기금을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개발진흥원(AWM)이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차입이 과도한 중소기업의 '지분(equity)'와 '유사지분(quasi-equity)' 매입을 기존 메자닌 펀드와 기업자본기금 및 RDA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총 5,000만 파운드 규모의 자본 조성을 통해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토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는 유럽투자은행(EIB) 대출 자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EIB가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공급한 자금이 적절한 금리로 대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상업은행들과의 협상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대출 위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시기를 2009년에서 1년간 유예하였고, 일시적으로 손실을 기록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5만 파운드 손실 범위 내에서 납세를 유예하는 '손실이전제(Loss carry-back)'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부가가치세(VAT) 세율은 한시적으로 1년간 15%로 2.5%p 인하하였으며, VAT 회계절차 과정보다 간소화하였다. 정부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을 10일 이내로 신속하게 결제하도록 하였으며, 정상적인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해 파산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개발청(RDA)을 통해 최대 25만 파운드를 대출하고, 외국에서 취득한 기업배당은 면세할 수 있도록 '금융법안(Finance Bill)'을 개정하였다. 또한 비사업용 부동산 면세기준을 1만 5,000 파운드 미만으로 1년간 임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비사업용 부동산 매각으로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규제는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할 것이며, 국내법과 EU법을 반드시 일치시키지는 않는다는 원칙으로 규제완화 작업을 시행중에 있다. 기업에 부과되는 행정규제는 '규제 산출물(regulatory outcome)' 품질을 저해하지는 않으면서 순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 목표에 매진할 계획이며, 신규규제 비용 상한을 설정하는 규제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보건안전 부문에서의 규제완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계획에 있다.

영국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권고한 '라이치 보고서(Leitch Review)'가 권고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방침으로, 중소기업에서 요구되는 주문형 지식과 기술을 종업원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트레인 투 게인(Train to Gain)' 교육 구상에 3억 5,000만 파운드를 배정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혁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전략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지식이전 활동에 대한 세제상 우대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연구기반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연구구상(SBRI)' 개정을 통해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정부 부처의 R&D 조달 계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300만 파운드 이상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에 '혁신 바우처'를 제공하여 대학 등 지식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도 지원키로 하였다.

영국정부는 '고용장려제(Employing People Campaign: EPC)'를 기업이 종업원을 채용할 때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이는 BERR이 기업의 고

용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고용법 안내 시책(Employment Law Guidance Programme: ELGP)'의 일환으로 EPC는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기업들을 '비즈니스링크(Business-Link)'의 온라인 도구 직접 연계를 통해 고용 관련 법적 의무 이행에 시간 및 자금을 중복 투입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EPC에는 영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기업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BERR은 EPC는 통해 연간 3억 6,500만 파운드를 절감시킬 계획이다.

영국 재무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8,000만 파운드를 증액하여 연간 총 3억 파운드로 확대할 계획으로 혁신적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증가 등의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R&D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공제비율은 175%로 확대되고 종업원 수는 250인에서 500인으로, 대차대조표 상 자산가치와 매출제한도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 3) 독일

#### (1) 정책동향

비교적 건실한 성장세를 보여왔던 독일 경제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제 독일 정부는 독일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의 혁신 기업 중 중소기업은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혁신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품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독일 혁신 시스템의 중요축이라 할 수 있다.

독일 정부의 중소기업 혁신지원 정책은 첨단기술전략, 혁신역량지원시책, 혁신성장이행시책, 경제혁신장려시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 HTS)는 공공연구 및 혁신 정책을 '전체론적(holistic)' 접근 방식으로 통합·조정하여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독일 정부는 HTS 하에 '첨단기술 창업자 펀드(Hightech Founder Fund)'를 조성하여 신기술 중소기업이 대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4년간 이자를 유예하면서 최대 7년까지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혁신역량지원시책(PRO INNO II)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개선을 위해 혁신적 생산,

공정 및 기술적 직무수행 등 향후 발전이 예상되는 기술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국내외 기업 혹은 연구기관과의 R&D 협력을 강화해 혁신적 제품, 공정 및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중소기업의 미래 기술 개발과 응용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을 통해 기업간 협력 프로젝트, 산학간 협력 프로젝트, R&D 계약이 수반된 기업의 협력 프로젝트, 기업과 연구기관의 인적교류, 기업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등 최대 30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혁신성장이행시책(INNO-WATT)은 중소기업(창업기업과 분사기업 등)이 경제적으로 소회된 지역 내에서도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징르부 주에서는 수행되고 있었으나, 2009년부터는 확대·운영이 시도되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 독일 정부는 경제적으로 소회된 지역 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단계에서 연구 결과가 상용화되는 단계까지의 R&D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제혁신장려시책(INSTI)은 정부의 '중소기업 특허 활동(SME Patent Action)' 정책 하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시키고 기업체 태부의 혁신 과정을 전문적으로 계획·조직·발전시키는 정책으로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현황 조사, 비용편익분석,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록, 외국에서의 권리 보호 등의 부문에 지원하고 있다.

## (2) 중소기업 지원방안

독일 정부는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서 신용지원과 조세감면을 중심으로 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총 230억 유로를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신용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기 어려워 파산하는 중소기업을 막기 위해 독일 부흥금융공사(KfW)를 중심으로 2009년까지 총 150억 유로를 추가 대출하고 기존업체의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였다. 2009년부터 2년 동안 중소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지역경제구조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20억 유로를 투입하여 도로와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토록 하였다. 또한 2009년 말까지 친환경적 건물 건축에 대해 30억 유로를 추가 투입하는 등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모든 신차 구매자에게는 1년 동안의 과세를 유예하였다.

고용 확대를 위해서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소득보전 기간과 실업보험 수령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였고, '수공업 서비스, 유지 및 현대화 활동'의 조세환급률을 2배로 확대하였다. 연방노동청(Federal Labor Agency)은 저소득 및 고령의 근로자들이 해고되

지 않도록 특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이직 희망자들에게는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 **4) 일본**

### **(1) 정책동향**

일본 정부는 경기하강 국면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과 고용 악화, 기업의 자금조달난 가중에 대한 긴급대응책 마련 등을 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의 극복과 경제환경 변화 적응을 위해 고용, 사회보장, 자금조달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 생활자 지원, 성장력 강화 및 저탄소사회의 실현, 지역활성화 및 농림수산업대책, 주택 및 방재대책 등이 포함된 범정부차원에서의 경제대책은 생활대책(2008.10.30), 생활방어 긴급대책(2008.12.19), 경제위기대책(2009.4.10)으로 수립되어 실시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대책은 고용, 금융, 사회적 약자 대책이 중점적인 침체가속화 회피를 최우선하는 국면에서 성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 민간수요 유발효과가 높은 대책, 수출의존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촉진을 위한 대책을 우선시하는 저점 및 반전을 확실히 하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있는 성장경제를 실현하는 새로운 성장궤도 국면으로 이어지는 3단계 경제국면을 상정하고 있다.

### **(2) 중소기업 지원방안**

일본의 부문별 주요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재취업 지원, 이직·실직자를 위한 주택·생활 지원, 고용보험료 인하 등의 고용대책과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대부 규모 확대 및 정책금융기관의 융자 확대 및 신용보증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및 중견·대기업의 신용경색 해소에 집중하고 있는 금융 대책,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 인하, 접대비 과세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 및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주택론 감세를 통해 주택투자를 촉진하는 감세 대책 등이 있다.

일본 정부는 2차 보정예산으로 2009년 예산·세제개정 등 대책을 실시중에 있다. 6조엔 규모의 긴급보증한도 및 3조엔 규모의 세이프티 넷 대출 등 총 9조엔 규모의 중소

기업 자금을 30조엔 규모로 확충하였으며, 개정 금융기능강화법에 따른 국가의 자본참가 한도를 2조엔에서 2차 보정예산에서 10조엔을 확충하여 총 12조엔으로 확대하였다. 또 은행 등 보유주식취득기구의 활용 및 강화를 위해 시중차입에 관련된 정부보증 한도를 20조엔으로 확대하였다.

국제협력은행(JBIC) 활용을 통한 일본기업의 해외사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토록 하였으며, 건설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역건설업 경영강화 융자제도를 통해 건설업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9년 대출한도 2,000억엔의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대책도 마련하여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시가지 형성 융자제도의 대상사업을 확충하고 주택·부동산 사업자의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연간 소득액 800만엔 이하 부분에 대해 22% 부과하던 법인세 경감세율을 18%로 인하하고 해당 연도의 적자를 미리 돌려주고 전년도 흑자와 상쇄해 전년 납부한 법인세액을 환급해 주는 조기환급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중소기업대책세제도 새로이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속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관련된 과세가 격의 80%에 대응하는 상속 주식 등의 배당에서 현행의 10% 경감세율을 연장하는 새로운 사업승계 세제를 마련하였으며,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에서 현행의 10% 경감세율을 연장하였다. 연간 100만엔, 5년간 누계 500만엔까지 상장 주식 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는 배당 등을 비과세하는 소액투자 우대조치를 20% 본칙세율의 적용 개시시기에 도입하였으며, 확정 각출 연금에서 개인각출(매칭 각출)의 각출금을 전액 소득 공제하고 각출한도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상속세와 금융 및 증권세제를 개편하였다.

## 5) EU

### (1) 정책동향

EU 집행위원회는 2009년 1월 EU 관보를 통하여 금융위기에 직면한 EU 회원국들의 자국 기업 및 산업 지원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EU 법규 하에서 취할 수 있는 지원, EU의 국가보조금 규정하에 각 회원국이 취하는 지원의 금액 한도, 대출 형태 지원조치의 요건, 금리 지원조치의 요건, 청정상품 생산지원 조치의 요건, 위험자본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EU 법규 하에서 젊은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100만 유로까지 지원 가능하며, 보조

금 지원 대상은 2008년 7월을 기준으로 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던 기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대출형태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보장에 대한 연간 프리미엄에 대해 최대 25%까지 인하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들의 자국 지원조치와 EU 보조금 규정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유형별 준수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에 따라 회원국들이 발표한 지원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경기진작 조치의 신뢰성이 다소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2) 중소기업 지원방안

유럽위원회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역내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2009년 9월 EU 금융업계 및 정책 당국의 움직임을 개관한 보고서(Financial Turmoil: latest developments on policy response)를 낸 바 있으며, EU 금융시장상황의 악화를 우려하여 EU 역내에서 금융혼란 가능성에 대비하는 정책적 움직임을 전개하였다. 더불어 EU 회원국 정부들은 유럽에서 일자리의 절반을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경제위기가 중소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을 최근 은행들의 대출연장의 기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유럽투자은행(BEI)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 유럽연합 재무부장관들의 요청에 따라 2011년까지 향후 3년간 300억 유로를 중소기업에 지원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 중소기업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유럽투자은행과 EU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지원자금을 수령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금을 배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토록 하였으며,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의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행정업무에 따른 부담도 완화시키고자 했다. 소기업법은 중소기업들을 불필요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지급지침(Late Payments Directive)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의 결제를 30일 이내로 단축시켰다. 또한 유럽투자은행은 중소기업에게도 대기업과 같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 대출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대출절차와 문서부담을 간소화시키는 등 대출조건을 완화시킬 방침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각국 고용유지지원금을 설립·확대를 추진하여 EU기금

을 통한 고용안정화대책도 마련하였다.

한편 프랑스 혁신청(OSEC)은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하여 유럽투자은행(BEI)과 협력하여 혁신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유럽투자은행은 중소기업지원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프랑스 혁신청은 향후 3년간 20억 유로를 혁신중소기업에 추가적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유럽사회개발은행(CEB)와도 자금지원계획을 체결하였는데, 이 자금은 프랑스에서 실업률(EU 평균실업률 이상)이 가장 높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 6) 중국

### (1) 정책동향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인 기술혁신을 가속화와 혁신적 중소기업의 지원이라 보고 중국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는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R&D에 참여하는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지향 중소기업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국가 자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연구소와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10만 명의 연구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도 수립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심각한 중소기업 융자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방식을 전환하여 건설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8개 부문 29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의견에는 중소기업 발전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독점업종 개혁 심화와 시장 진입 범위의 확대, 중소기업 진입 요건 완화, 민간자본의 농촌은행 설립 참여, 융자난 해소를 위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의 차별화, 대출회사 등 주식제 금융기관 설립 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 중소기업 지원방안

최근 중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은 제조업 부분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컸으며 중국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 민간 기업 수의 95% 이상으로 경제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중국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생산을 중단하거나 도산되는 중소기업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중국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세제혜택 부여, 기술혁신과 구조조정 추진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6대 조치’(《扶持中小企業的六大政策》)를 발표하였고, 이 조치에 대한 예산으로 35억 위안이 배정되었다.

중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6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법률체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공개적인 시장환경과 법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정부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정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사회보험 납입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보험료 비율을 인하하는 등의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차스닥 시장 정착의 가속화, 중소기업 대출위험보상펀드 설립,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보조금 지급, 중소기업 단기융자채권 발행제도의 확대, 중소기업대출 담보펀드 및 신용담보기구 설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금경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재정예산에서 중소기업지원 전문자금을 확대하고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립하여 민간자본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하였으며, ‘신기업소득세법’ 및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영세기업에는 소득세를 20%로, 국가의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하이테크사업체에 대해서는 15%로 인하하도록 하였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중앙재정예산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전문예산을 배정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제고, 중소기업의 R&D 투자, 생산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진보 촉진 정책도 펼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농촌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가전, 농기구, 자동차하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수출환급세율을 상향조정토록 했으며, 중소기업 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기구를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서비스센터와 소기업 창업기지, 중소기업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시키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였다.

## 2. 국내 중소기업 정책동향 및 지원방안

### 1) 부처별 정책동향

대표적인 부처별 중소기업 주요 정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재정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입찰기회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외교통상부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기업의 문화친화적인 환경 조성하고 향후 중소기업과 문화예술간 사생적 관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판로 및 인력 지원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산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R&D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을 계획 중에 있다.

환경부는 중소 규모의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규제 개선과 중소 재활용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기총량관리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방안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인력지원 강화, 근로자 능력개발 기회 확대, 중소기업 외국인력 활용여건 제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및 강화, 은행과 MOU 체결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보증지원 확대조치, 중소기업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프로그램', 자금지원과 구조조정의 병행, 회생가능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Fast Track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원천징수와 관련한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유류세 면제, 세정지원의 확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등을 시행하고 향후 원천징수 및 신고관련 부담의 축소, 조기환급금의 조기지급 상시화 등을 계획중에 있다.

조달청은 조달계약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판로지원과 지방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수주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며,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계약제도를 개선

할 계획이며, 병무청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고,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기반을 확충하고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과 지식재산(IP)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표준특허 창출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방위사업청은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수출진흥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위축된 경제활동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경제 역시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회복과 국제금융시장의 안정 등의 대외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경영환경도 세계 경제의 회복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벗어나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표 3-1> 2009년 부처별 주요 정책추진 실적 및 2010년 계획

부처	2009년 주요 정책추진 실적	2010년 계획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추경편성) 확대</li> <li>-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li> <li>- 재정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입찰기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출</li> <li>-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li> </ul>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관련 산업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지방세 경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기업 육성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li> </ul>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li> <li>- 미래원천분야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li> <li>- 산업 및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li> <li>-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원천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미래기반 기술개발사업 운영</li> <li>- 산업 및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li> <li>-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강화</li> </ul>
외교통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시장정보 제공</li> <li>-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li> <li>- 법률자문 서비스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지원활동 지속 추진</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기반 강화</li> <li>-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핵심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li> <li>- 기업하기 좋은 콘텐츠 창작·유통환경 조성</li> <li>- 중소기업의 문화친화적인 환경 조성</li> <li>-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추진</li> <li>-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구축 및 시장성·상품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콘텐츠 기업의 인력 수급 지원</li> <li>- 문화콘텐츠 기업 금융환경 개선</li> <li>-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li> <li>- 중소기업과 문화예술간 사생적 관계 조성</li> <li>-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li> <li>-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li> </ul>
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물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사업 지원</li> <li>- 농기계 생산 지원</li> <li>- 농업전문 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농기업 투자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li> <li>- 농업전문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농기업 투자활성화</li> <li>- 농기계 생산지원 추진</li> <li>- 농림수산물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사업 지속 지원</li> </ul>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강화</li> <li>-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li> <li>- 중소기업 판로 및 인력 지원</li> <li>- 기타 중소기업 지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강화</li> <li>-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li> <li>- 중소기업 판로 및 인력 지원</li> <li>- 기타 중소기업 지원 사업</li> </ul>
보건복지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산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R&amp;D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산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R&amp;D 지원</li> <li>-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경영안정자금 지원</li> <li>-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li> <li>- 환경산업 해외진출 촉진</li> <li>- 중소 규모 총량관리사업장 규제 개선</li> <li>- 굴뚝 원격감시체계(CleanSYS) 운영관리 강화</li> <li>- 맑은 공기 확보를 위한 기업부문 재정지원 강화</li> <li>- 탄소성적표지제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li> <li>- 상·하수도용 기자재 산업육성</li> <li>- 토양·지하수 정화업 육성을 위한 R&amp;D사업 추진</li> <li>- 중소 재활용 산업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경영안정자금 지원</li> <li>-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li> <li>- 환경산업 해외진출 촉진</li> <li>- 대기총량관리제 규제개선 등으로 중소기업 부담 경감</li> <li>- 굴뚝 원격감시체계(CleanSYS) 운영관리 강화</li> <li>- 맑은 공기 확보를 위한 기업부문 재정지원 강화</li> <li>- 탄소성적표지제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li> <li>- 상·하수도용 기자재 산업육성</li> <li>- 토양·지하수 정화업 육성을 위한 R&amp;D사업 추진</li> <li>- 중소 재활용 산업 육성</li> </ul>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li> <li>- 중소기업 인력지원 강화</li> <li>-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개발 기회 확대</li> <li>- 중소기업 외국인력 활용여건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li> <li>- 중소기업 인력지원 강화</li> <li>-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개발 기회 확대</li> <li>- 중소기업 외국인력 활용여건 제고</li> </ul>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 교통 및 해양분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건설기술혁신사업, 미래철도기술사업 등 9개 사업 지원</li> <li>-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li> <li>- 택시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 지속추진</li> <li>- 교통분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교통체계효율화사업' 내 미래교통시스템 등 3개 분야 15개 과제 지원</li> <li>- 내항화물선사에 대한 유류비 보조</li> <li>- 연안선대의 현대화 추진을 위한 선박현대화 지원자금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 교통 및 해양분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건설기술혁신사업, 미래철도기술사업 등 9개 사업 지원</li> <li>-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li> <li>- 택시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 지속추진</li> <li>- 연안화물선사에 유류비 지속 지원</li> <li>- 연안선대의 현대화 추진을 위한 선박현대화 지원자금 지원</li> </ul>
공정거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법 개정 추진</li> <li>-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개선</li> <li>- 기업자율에 의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법 개정 추진</li> <li>-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개선</li> <li>- 기업자율에 의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 조성</li> </ul>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li> <li>-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 추진</li> <li>- 화생가능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 운영</li> <li>- 은행과의 MOU 체결 등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추진</li> <li>-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보증지원 확대조치 시행</li> <li>- 중소기업에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프로그램' 시행</li> <li>-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구조조정 병행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노력을 지속 추진</li> <li>- 경기상황, 기업자금 수요 등을 감안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정책 추진</li> <li>- '09년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조치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및 부실증가 가능성에 적극 대처</li> </ul>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외</li> <li>-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사무실조사' 및 '간편조사' 활성화</li> <li>- 영세법인을 위한 '간편 전자신고시스템' 도입</li> <li>- 중소기업 원천징수 관련 납세협력비용 절감</li> <li>-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한 세정지원</li> <li>- 소형화물차 등 생계형 중소사업자를 위한 유류세 면제</li> <li>-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폭 확대</li> <li>-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신속 지급</li> <li>-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li> <li>- 영세납세자 불복비용 축소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사무실조사' 및 '간편조사' 지속추진</li> <li>- 중소기업 원천징수 및 신고관련 부담 축소</li> <li>-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li> <li>-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의 신고월 중 조기지급 상시화</li> <li>-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지속 추진</li> </ul>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li> <li>- 조달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li> <li>-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및 수출기업 전환 지원</li> <li>- 비축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중소기업 조업 지원</li> <li>- 지방 중소기업체 수요기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li> <li>- 비축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중소기업 조업 지원</li> <li>-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li> </ul>
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지원제도 운영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li> <li>- 취업포털사이트(<a href="http://iljari.mma.go.kr">http://iljari.mma.go.kr</a>) 활용 인력 채용</li> <li>-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지원제도 운영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li> <li>- 취업포털사이트(<a href="http://iljari.mma.go.kr">http://iljari.mma.go.kr</a>) 활용 인력 채용</li> <li>- 소규모 영세업체 생산·제조인력 지원</li> </ul>
특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확충</li> <li>- 우수 특허기술의 활용 촉진</li> <li>- 첨단부품소재 IP-R&amp;D 전략지원</li> <li>-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수행</li> <li>-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IP)리더 양성</li> <li>- 특허법률구조사업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확충</li> <li>- 우수 특허기술의 활용 촉진</li> <li>- 중소기업의 표준특허 창출역량 강화</li> <li>- 녹색기술분야 특허 창출 중점지원</li> <li>- 특허 관련 법률구조사업 시행</li> <li>-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li> </ul>
방위사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li> <li>- 방산분야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li> <li>- 중소기업 방산수출 진흥기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품국산화 개발에 정부의 지원 강화</li> <li>- 방위산업 상생협력 환경조성 지원</li> <li>- 방산수출 지원체계 강화</li> </ul>

자료: 중소기업 육성시책 2010(중소기업청, 2009) 재정리

향후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확산, 벤처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활동 촉진 등을 중점과제로, 창업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경쟁촉진형 성장기반의 조성, 소상공인 경영혁신 및 자생력 제고를 지속과제로 하여 펼쳐질 전망이다.

## 2) 중소기업 지원방안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해 주요 중소기업 대

책을 연이어 발표하였으며, 2008년 말부터 조기집행되었다.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책금융 공급,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및 취업알선, 시장수요확대 및 마케팅 기반 강화,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활동 촉진 정책 등을 펼쳤다. 더불어 한국은행은 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전용 기술 개발펀드를 조성하였다.

금융위기에 대응한 정책자금은 2008년 3조 2천억에서 2009년 4조 3천억, 2009년 추경 5조 9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재무평가의 비중을 축소, 융자제한 부채비율의 완화, 가결산 재무제표의 인정, 정책자금 취급자 면책 등 그 지원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신용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위축에 대응하였으며, 영세 자영업자 및 근로자 특례보증을 통한 금융소외계층 지원과 안정적인 판매대금 회수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확대하였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를 확대시키고 마케팅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실질점검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조합추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하였다. 조달청의 대지급을 확대하고 방위사업청의 절충교역에 중소기업제품을 포함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홍보지원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공동 A/S콜센터 및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마케팅 기반을 강화토록 하였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바이어와의 연계, 수출관련 교육 등을 시행하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를 유도하였다. 틈새시장 위주의 시장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 전략품목으로 수출 컨소시엄을 구성 및 운영하였으며 해외시장개척단도 파견하였다.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으로 기술무역장벽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지거점 및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수출인큐베이터를 통해서도 법인 설립과 마케팅 등을 종합지원하였으며, 민간 해외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은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실직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취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 맞춤형 교육훈련은 전문계고와 전문대, 전문계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5년의 교육과정을 시범·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계를 통해 맞춤형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연계 정보를 우수벤처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과 고용지원센터 알선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요 중소기업 대책으로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기관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책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의 인수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국은행은 용도제한 대상이 되는 외화대출로써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상환기한 연장 허용 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운전자금 외화대출에 대하여 용도제한 적용을 면제하는 방식의 ‘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기한 제한 폐지’를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업경영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외화대출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수출 환어음 담보 대출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을 실시하는 한편 유동성 공급 확대 대책도 수립 중에 있다.

<표 3-2>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요 중소기업 대책

부처	주요 대책 내용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기관	-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대책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 확대 - 수출중소기업 추가자금 지원
한국은행	- 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기한 제한 폐지 - 외화대출의 용도 제한 완화 - 수출 환어음 담보 대출제도 보완방안실시 - 유동성 공급 확대 대책
금융감독원	-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MOU 내용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반영
금융위원회	-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
정부, 한국은행	-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외화유동성 공급 방안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전용 기술 개발펀드 조성 - 정책자금 1000억원 추가 공급 -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 금융소의 자영업자 특례 신용보증 지원
금융위원회, 서울시	-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대출 프로그램 시행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한 MOU 내용에 반영기로 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서울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과 판로를 동시에 연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펀드’를 조성하여 최근 13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구매조건부 R&D 협력펀드’를 조성하였다. 결성된 이 펀드 자금으로 대기업이 구매를 희망하는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개발비가 지원되며 투자 방식은 출연 형태로 이루어져 중소기업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고,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안정적인 판로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사업화까지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1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과 금융소의 자영업자 특례 신용보증을 지원키로 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다음과 같이 운용할 예정이다.

<표 3-3> 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구분	예산	용자조건		
세부사업	2009년	용자한도	용자기간	지원기준
창업초기기업육성	10,000	연간 30억 원(운전 5억 원)	8년 이내(운전 5년)	- 금라: 공자 금리 $\Delta 0.7\%$ - 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사업전환	1,475	연간 40억 원(운전 5억 원)	8년 이내(운전 5년)	- 금라: 공자 금리 $\Delta 0.7\%$ - 사업전환, 무역조정계획승인
기술개발사업화	1,580	연간 20억 원(운전 5억 원)	8년 이내(운전 5년)	- 금라: 공자 금리 $\Delta 0.7\%$ - 특허 등 기술 보유 기업
지방 소기업기술 사업화	1,000	연간 20억 원(운전 7억 원)	9년 이내(운전 6년)	- 금라: 공자 금리 $\Delta 0.7\%$ - 비수도권 소재 기업
신성장기반 (지식서비스)	11,900	연간 30억 원(운전 5억 원)	8년 이내(운전 5년)	- 금라: 공자 금리 $\Delta 0.33\%$ - 업력 7년 이상, 시설투자기업협동화 사업, 지식서비스업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원	200	연간 30억 원(운전 5억 원)	8년 이내(운전 5년)	- 금라: 공자 금리 $\Delta 0.33\%$ -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방중소기업 경쟁력강화	3,000	연간 30억 원(운전 7억 원)	8년 이내(운전 5년)	- 금라: 공자 금리 $\Delta 0.33\%$ -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영위기업 등
긴급경영안정	7,000	연간 5억 원, 3년간 10억 원	5년 이내	- 금라: 공자 금리 $\Delta 0.33\%$ , 재해기업 $\Delta 1.23\%$ - 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자산유통화	400	30억 원~70억 원	-	-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 신용평가등급 B~BBB대상
소상공인	5,000	5천만 원	5년 이내	- 금라: 공자 금리 $\Delta 0.33\%$ -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폐업자영업자 전업지원	1,000	5천만 원	5년 이내	- 금라: 공자 금리 $\Delta 0.33\%$ - 폐업 및 전업계획 소상공인
계	42,555	-	-	-

자료: 김주미(2009)

### 3. 시사점 및 향후과제 도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많은 국가들이 내수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과제를 펼치고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감세 및 보조금 지원 조치를 통한 내수기반 강화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에너지 등의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위기 극복 이후 세계시장에 대한 주도권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의 시기에 미국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의 창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과 장기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강조하며 신용여건 개선책과 실업수당 확대,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자금조성,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기업 환경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영국 경제성장의 토대라는 인식 하에 글로벌 실물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친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특히 영국이 지역개발청(RDA)을 통해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을 하는 제도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유동성 확대 정책이 정부기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도 간소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혁신 시스템의 중요 축 역할을 하던 독일은 금융위기로 급격히 경제가 위축되자 불투명한 외부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식이전을 통한 R&D 결과 상용화 장려, 이공계 고급인력 육성 및 확보, R&D 투자 비율의 제고 등의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전략, 혁신역량지원시책, 혁신이행시책, 경제혁신장려시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독일의 중소기업 혁신지원 정책은 지식이전과 연구의 상용화 작업의 미흡, 상대적으로 뒤쳐진 IT분야 등이 지적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혁신지원 정책에 적합한 지식이전 활동에 대한 지원, 지식 및 기술의 융합의 성과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기술역량의 제고, 기술협력의 선진화 등의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정책은 자금조달대책의 확충 및 세제개정 등이 중점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중장기 성장을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에너지·에너지 절약 기술의 보급, 에너지제품 구입 보조금 제도, 교통·도시·지역의 저탄소화를 중심으로 하는 ‘저탄소혁명’을 국비 2조 2천억엔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은 단순히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



중'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정책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환경 및 에너지 등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점을 인식하고 경기부양책과는 별도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6대 조치'를 발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인민은행 대출 규제 완화를 거쳐 폐지를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3-4>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중소기업 지원정책 비교

구분	관련법 제정	경기부양책	구제금융(기금조성)	중소기업지원책	금리·세금
미국	- 긴급경제안정화법	- 소득세 환급을 중심으로 한 1차 경기부양책 - 지방정부지원, 사회간접자본 구축,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2차 경기부양책	- EESA 7,000억 달러 - 단기자산유동화증권시책 2,000억 달러	- 금융중개권 - 연방조달규정	- 정책금리 3.25%p 인하
영국	- 중소기업금융제도 한시 운영 - 고정물수출금융제도 연장 - 금융법안 개정 - 고용장려제	- 총 200억 파운드 규모의 경기부양책	- RDA를 통해 최대 25만 파운드 직접 대출 - 상업할인לו 총 400만 파운드 대출 가능	- 공기업 거래대금 10일 내 결제 - 헬스 체크 서비스 무료 제공 - 신용관리연구소의 금융정보 무료 제공	- 정책금리 1.5%p 인하 - 법인세 인상 유예 - 손실이전제 기간 연장 -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및 회계절차 간소화 - 세액 공제규모 확대
독일	- 유한회사책임법 개정	- 총 230억 유로를 투입하는 경기부양책	- 독일부흥금융공사의 추가대출 150억 유로	- 신용대출 만기 연장 - 첨단기술 창업자 펀드 조성	-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 조세감면
일본	- 금융기능강화법 개정 - 정책투자은행의 기업어음 매입제도 신설	- 총 75조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	- 중소기업 자금조달 30조엔으로 규모 확충 - 정부보증 한도 20조엔으로 확대	- 국제협력은행 활용 자금조달 지원	- 정책금리 0.2%p 인하 - 법인세 경감세율 인하 - 조기환급제도 부활 - 사업승계 세제 신설
EU	- 연지급지침 개정안 시행	- EU 금융업계 및 정책당국의 움직임을 개관한 보고서 발표 - EU 집행위원회, 회원국 자국지원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 유럽투자은행, 2011년까지 300억 유로 지원	- 기업대출 범위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 고용유지자금 설립 및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화대책	- 정책금리 2.25%p 인하 -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 및 세제개혁 검토 -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세금우대조치 도입
중국	- 증치세(부가가치세) 개혁방안 발표 - 인민은행 대출 규제 폐지	- 내수확대를 위한 경기부양책 발표, 4조위안 규모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6대 조치, 35억 위안 배정	- 중소기업 신용담보대출 보조방식 확정 - 중소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발표	- 기준금리 1.9%p 인하 - 수출 증치세 환급율 인상
한국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	-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	- 2009년 추경 5조 9천억원으로 정책자금 대폭 확대 - 200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25억원 규모	- 유동성지원 확대 및 외화유동성 공급 -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펀드 조성	- 정책금리 3.25%p 인하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신속 지급 - 중소기업 세정지원

세계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통적인 대응책은 관련법 제정을 통한 것으로 미국의 긴급경제안정화법 제정, 영국의 중소기업금융제도와 고정물수출금융제도, 금융법안 개정 및 고용장려제도, 독일의 유한회사책임법 개정, 일본의 금융기능강화법 개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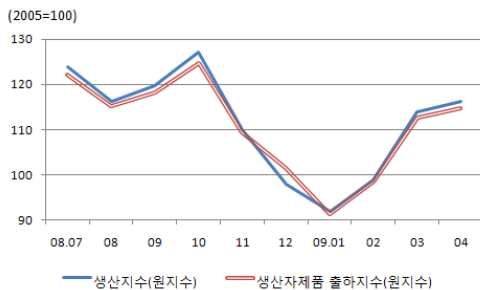
정책투자은행의 기업어음 매입제도 신설, EU의 연지급지침 개정안, 중국의 증치세 개혁 방안과 대출 규제 폐지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위기극복 및 중소기업정책지원과 관련한 법 제정에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이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제도 운영이나 제도 개선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를 신설·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남 중소기업 애로요인 및 지원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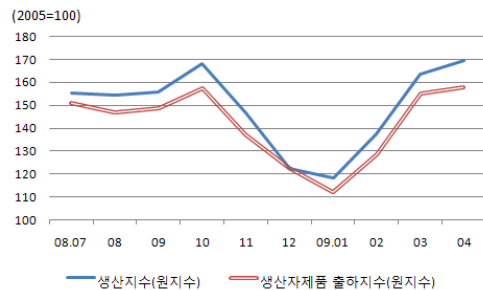
## 1.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실물현황

### 1) 중소기업 산업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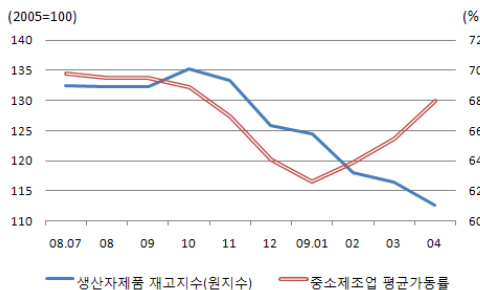
제조업 부문의 산업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생산, 출하, 재고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악화되다 2009년 들어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제조업 생산지수는 2008년 7월 123.8에서 2009년 1월 91.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월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다. 충남의 제조업 생산은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2009년 1월 118.5를 터닝 포인트로 하여 금융위기 이전수준 이상으로 제조업 생산이 활발해져 2009년 4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169.5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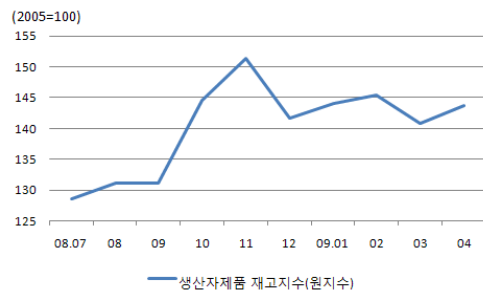
[그림 4-1] 제조업 생산 및 출하지수(전국)



[그림 4-2] 제조업 생산 및 출하지수(충남)



[그림 4-3] 재고지수 및 중소제조업평균가동률(전국)



[그림 4-4] 제조업 재고지수(충남)

자료: 통계청

<표 4-1> 제조업 산업활동 추이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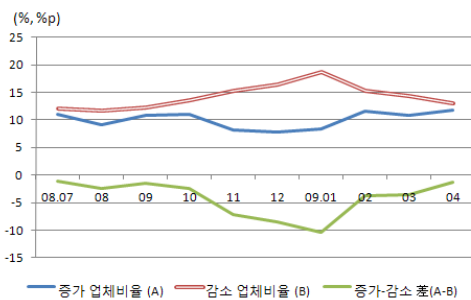
(2005=100, %)

구 분		2008						20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생산지수(원지수)	123.8	116.2	119.6	127.2	109.9	98	91.8	98.8	114	116.2
	생산자제품 출하지수(원지수)	122.2	115.1	118.3	124.8	109.4	101.6	91.3	98.6	112.7	114.7
	생산자제품 재고지수(원지수)	132.5	132.3	132.3	135.2	133.4	125.8	124.4	118.1	116.5	112.6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69.8	69.5	69.5	68.9	66.9	64.1	62.6	63.9	65.5	68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69.8	69.5	69.5	68.9	66.9	64.1	62.6	63.9	65.5	68
충청남도	생산지수(원지수)	155.2	154.5	155.9	168.2	146.6	122.6	118.5	137.3	163.7	169.5
	생산자제품 출하지수(원지수)	150.9	146.9	148.9	157.2	137.4	122.7	112	128.8	155	157.8
	생산자제품 재고지수(원지수)	128.6	131.2	131.2	144.5	151.4	141.7	144.1	145.5	140.9	143.7
	생산자제품 재고지수(원지수)	128.6	131.2	131.2	144.5	151.4	141.7	144.1	145.5	140.9	143.7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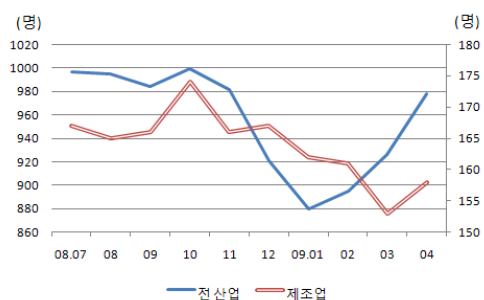
출하 및 재고수준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실물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출하 지수와 재고지수는 각각 감소 및 증가하다 2009년 들어 실물경기 반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 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09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재고지수는 112.6으로 2008년 4월 132.5보다 낮아진 반면, 충남의 제조업 재고지수는 143.7로 2008년 4월 당시의 128.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 2) 중소기업 고용



자료: 기업은행

[그림 4-5] 중소기업 고용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4-6] 충남 제조업 고용 추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중소 제조업 고용은 감소업체 비율은 상승하고, 증가하는 업체비율은 감소하는 고용축소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고용은 2008년 12월 증가업체비율은 7.9%로 연중 최저수준을 보이다 2009년 3월 들어 2008년 7월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2009년 1월 들어 감소업체비율은 18.7%, 증가업체 비율은 8.4%로 그 차이가 10.3%p로 고용수준이 가장 악화되었고, 이후 점차 개선되어 2009년 4월에는 2008년 7월 수준으로 고용상황이 회복되었다.

<표 4-2> 중소기업 고용 추이

(%, %p)

구 분	2008						20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증가 업체비율(A)	11	9.2	10.8	11.1	8.2	7.9	8.4	11.5	10.9	11.8
감소 업체비율(B)	12.1	11.6	12.2	13.5	15.3	16.4	18.7	15.2	14.4	13.1
증가-감소 差(A-B)	-1.1	-2.4	-1.4	-2.4	-7.1	-8.5	-10.3	-3.7	-3.5	-1.3

\* : 고용 동향은 월중 종사자수가 전월에 비해 증가(감소)한 업체비율(%)을 산출

\*\* : 산업별, 규모별은 전월대비 증가-감소 差(%p)

자료: 기업은행

<표 4-3> 충남 제조업 고용 추이

(%, %p)

구 분	2008						20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 산업	997	995	984	999	982	921	880	895	926	978
제조업	167	165	166	174	166	167	162	161	153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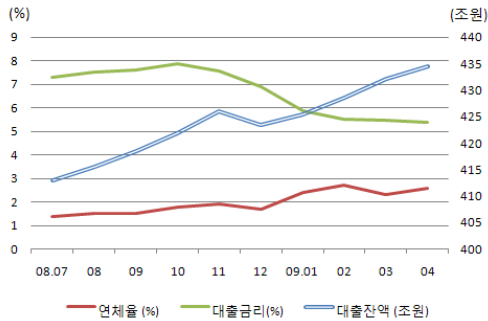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3) 중소기업 금융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은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양호하나, 실물경기 악화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란이 대출금 상환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08년 4월 대출잔액은 413.0조원에서 2009년 4월 434.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연체율 역시 동 기간 중 1.4%에서 2.6%로 약 1.2%p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실물경기가 점차 개선되는 데 비해, 중소기업들의 금융사정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로 인해 대출금리는 낮아졌으나, 실물경기 악화로 인해 금리인하효과가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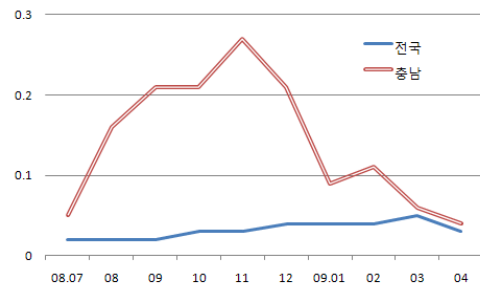
한편, 중소기업 어음부도율은 전국의 경우 2009년 3월을 기점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충

남은 2월을 기점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물경기악화로 인한 어음부도율은 충남이 전국평균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

[그림 4-7] 대출잔액 및 연체율



자료: 중소기업청

[그림 4-8] 자금사정(어음부도율)

<표 4-4> 중소기업 대출잔액 및 연체율

구 분	2008						20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대출잔액(조원)	413	415.5	418.5	421.9	426	423.4	425.5	428.5	432.1	434.4
연체율(%)	1.4	1.5	1.5	1.8	1.9	1.7	2.4	2.7	2.3	2.6
대출금리(%)	7.3	7.5	7.6	7.86	7.56	6.91	5.88	5.51	5.45	5.38

자료: 한국은행

<표 4-5> 중소기업 자금사정(어음부도율)

(단위: %)

구 분	2008						20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0.02	0.02	0.02	0.03	0.03	0.04	0.04	0.04	0.05	0.03
충남	0.05	0.16	0.21	0.21	0.27	0.21	0.09	0.11	0.06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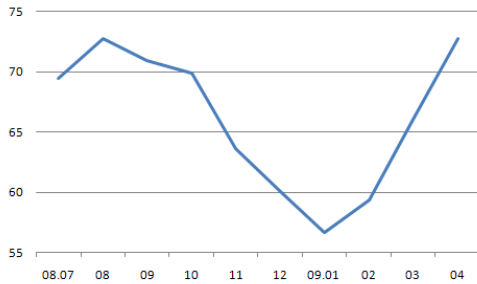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4) 중소기업 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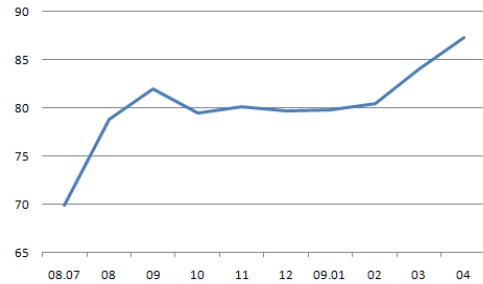
자금조달, 원자재조달, 생산설비수준지수 실적치(SBHI)는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4) 자금조달사정 및 원자재조달사정 실적치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데, 자금

4)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 Small Business Health Index)는 기업실사지수(BSI)가 포함(동일) 응답빈도가 반영되지

조달사정실적치는 2009년 1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개선되고 있으며, 원자재조달사정 실적치는 2009년 2월부터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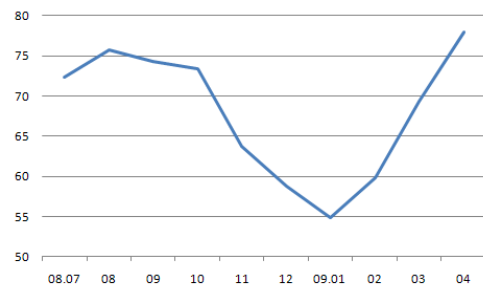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그림 4-9] 자금조달사정 실적 SBHI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그림 4-10] 원자재조달사정 실적 SBHI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그림 4-11] 생산설비수준 실적 SBHI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그림 4-12] 경기전반 실적 SBHI

<표 4-6> 중소기업 실적 SBHI

구 분	2008						20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자금조달사정 실적 SBHI	69.5	72.8	70.9	69.9	63.6	60.1	56.7	59.4	66.1	72.8
원자재조달사정 실적 SBHI	69.9	78.8	82	79.5	80.1	79.7	79.8	80.5	84.1	87.3
생산설비수준 실적 SBHI	104	104.7	105.3	104.9	108.7	112.2	113	110.4	108.9	108.3
경기전반실적 SBHI	72.4	75.7	74.3	73.4	63.7	58.8	54.9	59.8	69.4	78.0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3점척도를 5점척도로 조사하여 가중치를 곱해 경기에측지수를 산출한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매월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지수의 범위는  $0 \leq SBHI \leq 200$ 로 100 이상이면 전월보다 호전, 100 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 100이면 전월과 보합수준으로 해석하며, 수준판단항목인 생산설비·제품재고·고용수준 SBHI는 일반적으로 경기확장기에는 하락, 경기수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이다.

반면, 생산설비수준 실적치는 2009년 10월부터 급격히 개선되었으나, 2009년 1월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실적치들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및 유동성 확대노력 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망치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실물경기는 점차회복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체감경기 회복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다.

경기전반 실적치는 2009년 1월을 저점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정부의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와 재정 조기집행 등에 영향을 받아 상승추세를 지속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이어나가고 있다.

## 2. 글로벌 금융위기가 충남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 1) 변수선정과 정규분포, 동분산, 안정성 검정

본 연구에서 이용된 시계열 자료의 표본기간은 2003년 1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원자재가격과 환율이 안정을 찾아가던 2009년 4월까지이다. 표본수는 각 변수 별로 총 76개이며, 충남 어음부도율, 콜금리, 원/달러환율, 원자재가격(원유, 나프타, 유연탄)변수가 분석에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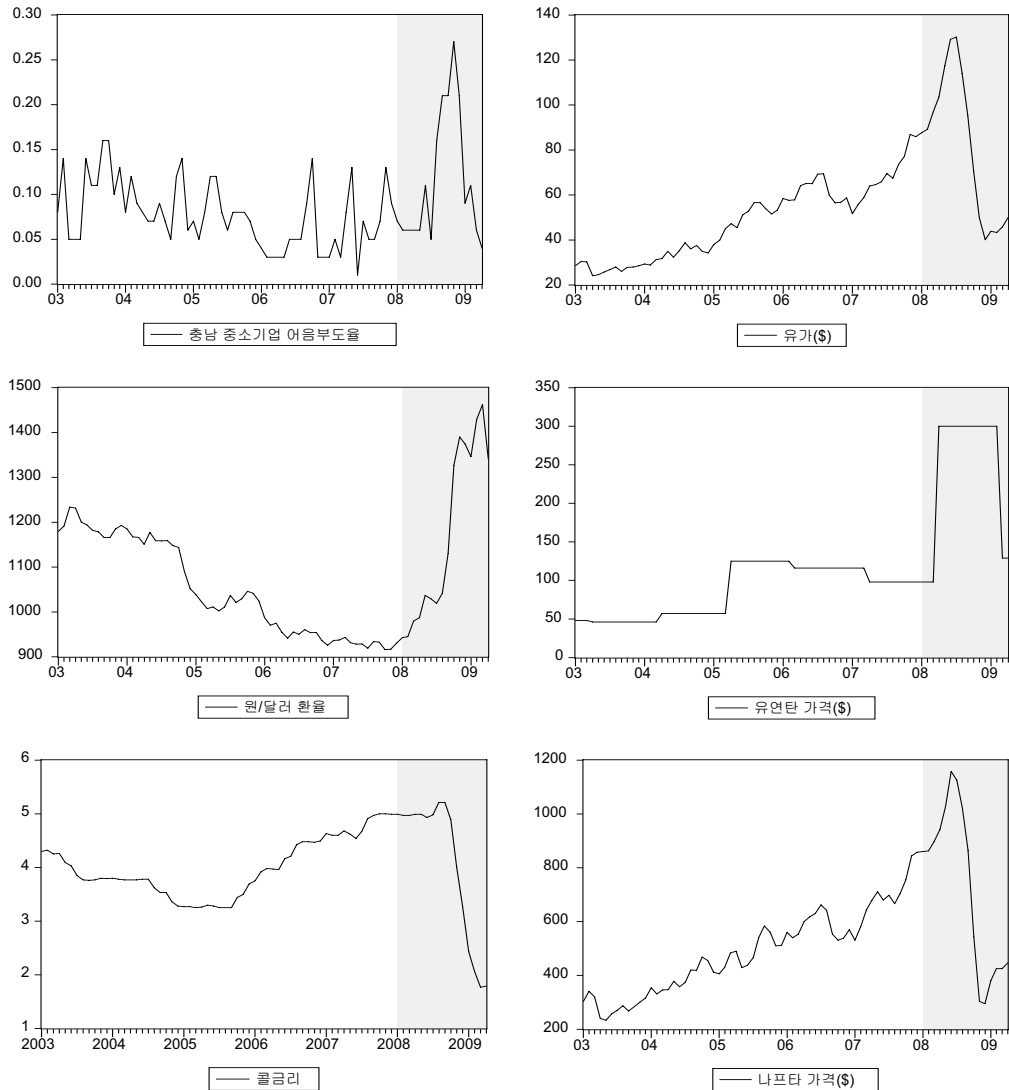
<표 4-7> 시계열 자료 내용

자료명	내 용
$dbrc_t$	충남 어음부도율[dishonored bill ratio of chungnam]
$cr_t$	콜금리[call rate]
$ex_t$	원/달러 환율[won/dollar exchange rate]
$oil_t$	원유가격[oil price(\$)]
$nafta_t$	나프타가격[nafta price(\$)]
$sc_t$	유연탄가격[soft coal price(\$)]

본 분석에 이용된 개별변수의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환율변동성이 확대되고, 자금시장에서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투기수요 증대가 원유 및 원자재가격의 급등을 촉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따라서 환율, 금



리, 그리고 원유 및 원자재가격변수와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에 대한 대응변수로 어음부도율을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로 채택하였다.<sup>5)</sup> 실제로 [그림 4-13]에서 나타난 것처럼 충남 중소기업 어음부도율은 환율, 금리, 그리고 유가 및 원자재가와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주: 음영처리 부분은 2008.1~2009.4 기간임

[그림 4-13] 중소기업 어음부도율과 금리, 환율, 원유 및 원자재가격 추이

5) 원자재로 나프타와 유연탄이 채택된 이유는 이들 품목이 충남의 수입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유에 이어 각각 2, 3위에 해당하기 때문임.

먼저, 각 변수들이 통상의 회귀분석에서 가정하고 있는 정규분포, 독립성, 동분산의 성질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검정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4-8>에 나타나 있다. 정규분포의 여부는 분포의 비대칭성을 측정하는 왜도(Skewness)와 뽀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첨도(Kurtosis)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왜도의 경우 (-)값을 갖는  $cr_t$  는 왼쪽으로 편향되는 비대칭적 분포를 하고 있고, (+)값을 갖는  $dbrc_t$ ,  $ex_t$ ,  $oil_t$ ,  $nafta_t$ ,  $sc_t$  는 오른쪽으로 편향되는 비대칭적 분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첨도에 있어서는 모든 변수들이 정규분포의 첨도 3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정규분포에 비해 꼬리가 두터운(fat tail)특성을 가지는 첨예분포(leptokurtic distribution)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모든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정규분포를 검정하는 Jarque-Bera(1980)의 정규성 검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모든 변수들의 Jarque-Bera통계량이 1% 유의수준하에서  $\chi^2(2)$ 분포의 임계치인 9.21보다 크므로 정규분포를 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또한 자기상관의 여부는 Ljung-Box의 Q통계량에 의해 검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들이 시차 1~10까지 유의수준 1%에서  $\chi^2(1) \sim \chi^2(10)$ 분포의 임계치보다 크므로 자기상관계수가 0 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바, 이는 모든 변수들이 자기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8>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 수 통계량	$dbrc_t$	$cr_t$	$ex_t$	$oil_t$	$nafta_t$	$sc_t$
Mean	0.085	4.001	1075.6	55.1	537.6	118.4
Maximum	0.270	5.210	1462.0	130.2	1158.0	300.0
Minimum	0.010	1.770	915.9	24.0	234.0	46.1
Std. Dev	0.049	0.763	138.7	25.1	217.9	80.9
Skewness	1.353	-0.664	0.872	1.100	0.901	1.454
Kurtosis	5.104	3.605	3.014	3.940	3.310	3.947
Jarque-Bera	37.210	9.739	9.637	18.119	10.587	29.603
Q(N)						
Q(1)	27.826(.00)	65.395(.00)	69.656(.00)	73.032(.00)	70.868(.00)	66.657(.00)
Q(2)	39.942(.00)	112.74(.00)	125.14(.00)	135.66(.00)	127.96(.00)	122.73(.00)
Q(4)	45.964(.00)	159.40(.00)	203.15(.00)	223.64(.00)	202.48(.00)	205.05(.00)
Q(6)	46.072(.00)	173.68(.00)	243.19(.00)	273.74(.00)	243.39(.00)	253.84(.00)
Q(8)	46.118(.00)	180.88(.00)	259.14(.00)	305.31(.00)	269.28(.00)	277.30(.00)
Q(10)	46.490(.00)	185.19(.00)	267.58(.00)	326.29(.00)	286.14(.00)	284.35(.00)

이상의 검정결과를 볼 때, 모든 변수들은 조건부 동분산을 가지지 못하고 조건부 이분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시계열 변수들이 안정성을 갖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가 <표 4-9>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 ADF검정, Phillips & Perron 검정결과, 모든 수준변수에 대해 단위근이 존재하였으며, 대수차분변수에 대해서는 모두 10% 이내의 유의수준하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났다. 즉, 단위근 추정방정식이 상수항과 추세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에  $cr_t$ ,  $dbrc_t$ ,  $ex_t$ ,  $oil_t$ ,  $nafta_t$ ,  $sc_t$  변수는 모두 I(1)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이용되는 모든 변수는 비정규 분포를 하고 있으며, 조건부 분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정상(stationary) 시계열임을 알 수 있다.

<표 4-9> 단위근 검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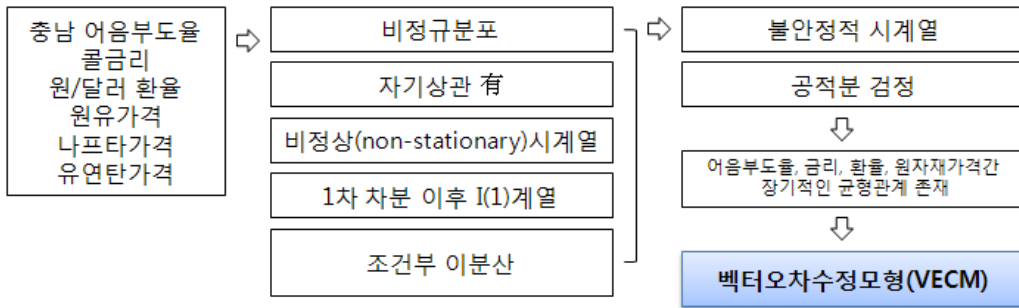
변 수 \ 검정방법	ADF 검정		Phillips-Perron 검정	
	$\rho$	ADF검정통계량	$\rho$	PP검정통계량
$Y_{t-1}$				
$dbrc_t$	-2.253	-2.532	-1.406	-1.279
$cr_t$	-0.043	-1.216	0.051	-0.236
$ex_t$	-0.097	-2.175	-0.000	-0.212
$oil_t$	-0.182	-2.905	-0.038	-1.994
$nafta_t$	-0.140	-2.044	-0.053	-2.028
$sc_t$	-0.252	-2.814	-0.169	-2.633
$\Delta \ln dbrc_t$	-2.257	-5.097***	-1.406	-14.435***
$\Delta \ln cr_t$	-0.448	-3.404*	-0.255	-3.458*
$\Delta \ln ex_t$	-0.850	-3.873**	-0.656	-5.064***
$\Delta \ln oil_t$	-0.710	-3.775**	-0.590	-5.557***
$\Delta \ln nafta_t$	-0.824	-4.137***	-0.554	-5.192***
$\Delta \ln sc_t$	-1.036	-3.597**	-1.007	-8.552***

주: 1) Phillips-Perron 검정식 :  $\Delta Y_t = \alpha + \beta T + \rho Y_{t-1} + \epsilon_t$

2) ADF 검정식 :  $\Delta Y_t = \alpha + \beta T + \rho Y_{t-1} + \sum_{i=1}^k \delta_i \Delta Y_{t-i} + \epsilon_t$

3) ADF 검정식에서  $k$ 의 시차는 AIC과 SC에 의해 결정함.

4)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그림 4-14] 변수검정 및 모형설정 과정

## 2) 벡터오차수정모형에 의한 추정

### (1)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어음부도율과 금리, 환율 및 원자재가격간의 선형결합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특징이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간의 정태적 및 동태적인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벡터회귀자기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VAR)을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VAR모형은 차분된 시계열을 이용함으로써 시계열의 고유한 잠재정보를 상실시키므로 동태적이고 안정적인 장기균형관계를 도출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적분관계 여부를 검정한 후에 공적분이 존재한다면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을 이용하여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어음부도율과 금리, 환율 및 원자재가격간의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분석하고 VECM에 기초한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IRF)의 추정을 위해 벡터오차수정모형을 구성한다.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은 다음과 같이 k차 VAR모형을 기초로 하고 있다.

$$Y_t = c + \Pi_1 Y_{t-1} + \Pi_2 Y_{t-2} + \cdots + \Pi_k Y_{t-k} + \epsilon_t \dots \dots \dots (1)$$

여기서,  $Y$  : 변수벡터

$\Pi$  : 계수행렬

$c$  : 상수항 벡터

$\epsilon$  : 교란항 벡터

위 (1)식을 1차 차분형태로 변환시키면 식(2)와 같이 오차수정항( $\Pi Y_{t-k}$ )이 포함된 VECM방정식이 된다.

$$\begin{aligned}\Delta Y_t &= \Gamma_1 \Delta Y_{t-1} + \dots + \Gamma_{k-1} \Delta Y_{t-k+1} + \Pi Y_{t-k} + \mu + \epsilon_t \\ &= \sum_{i=1}^{k-1} \Gamma_i \Delta Y_{t-i} + \Pi Y_{t-k} + \mu + \epsilon_t \dots \dots \dots (2)\end{aligned}$$

여기서,  $\Delta$ 는 1차 차분을 나타내고,  $Y_t$ 는  $p \times 1$  벡터,  $\mu$ 는  $p \times 1$ 인 상수항 벡터,  $k$ 는 시차 구조,  $\epsilon_t$ 는  $p \times 1$ 인 가우시안 백색오차 벡터,  $\Gamma_i$ 는  $p \times p$  행렬로써  $i$ 번째 시차에서  $p$ 개 방정식간의 단기조정을 나타낸다. 계수행렬  $\Pi = \alpha\beta'$ 는  $p \times r$  행렬로써  $p$ 개 변수간의 장기적 균형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alpha$ 는 조정속도를 나타내는 계수벡터이며,  $\beta$ 는 공적분 벡터를 표시한다. 만약 변수들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면 안정적인 선형결합  $\beta' = Y_t$  즉,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Johansen 공적분 검정에 의한 장기균형관계 분석

앞에서의 단위근 검정결과, 모든 변수들이  $I(1)$ 계열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소기업 어음부도율과 금리, 환율 및 원자재가격 변수간의 안정적인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즉, 벡터오차수정모형분석에서 이용될 변수들간의 공적분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동 검정에 앞서 적정시차의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 VAR모형에서 아카이케 정보기준(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와 슈왈츠 기준(Schwartz Criterion, SC)을 적용한 결과, 적정시차(k)는 충남 어음부도율( $dbrc_t$ )과 콜금리( $cr_t$ ) 및 원유가격( $oil_t$ )간에는 2로 분석되었으며, 충남 어음부도율( $dbrc_t$ )과 원/달러 환율( $ex_t$ ) 및 나프타가격( $nafta_t$ )간에는 3, 충남 어음부도율( $dbrc_t$ )과 유연탄가격( $sc_t$ )간에는 1로 분석되었다.

공적분 검정은 시계열 자료의 추세여부를 고려함과 동시에 공적분 방정식에 상수항과 추세를 포함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시계열자료에 추세여부와 관계없이 공적분 방정식에 상수항을 고려한 경우에 공적분 벡터 1개(Rank=1)가 존재하여 중소기업 어음부도율과 금리, 환율 및 원자재가격간에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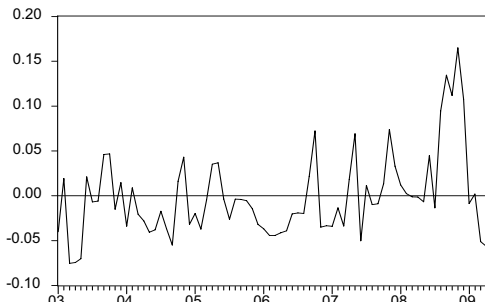
<표 4-10> 2변수 VAR적정시차 검정결과

충남 어음부도율( $dbrc_t$ )과 콜금리( $cr_t$ )										
시차(월)	1	2	3	4	5	6	7	8	9	10
AIC	-4.65	-5.13	-5.06	-5.04	-5.03	-5.17	-5.09	-4.97	-4.96	-4.98
SC	-4.47	-4.81	-4.62	-4.48	-4.32	-4.33	-4.12	-3.86	-3.71	-3.60
충남 어음부도율( $dbrc_t$ )과 원/달러 환율( $ex_t$ )										
시차(월)	1	2	3	4	5	6	7	8	9	10
AIC	6.22	6.15	6.02	6.06	5.98	5.91	5.94	6.04	6.18	6.10
SC	6.41	6.47	6.47	6.63	6.69	6.74	6.92	7.15	7.43	7.50
충남 어음부도율( $dbrc_t$ )과 원유가격( $oil_t$ )										
시차(월)	1	2	3	4	5	6	7	8	9	10
AIC	2.54	2.26	2.35	2.33	2.45	2.33	2.45	2.53	2.53	2.49
SC	2.73	2.58	2.79	2.90	3.15	3.16	3.42	3.64	3.78	3.88
충남 어음부도율( $dbrc_t$ )과 나프타가격( $nafta_t$ )										
시차(월)	1	2	3	4	5	6	7	8	9	10
AIC	7.34	7.03	6.95	7.01	7.12	7.03	7.15	7.28	7.24	7.20
SC	7.53	7.34	7.39	7.58	7.82	7.86	8.12	8.39	8.49	8.59
충남 어음부도율( $dbrc_t$ )과 유연탄가격( $sc_t$ )										
시차(월)	1	2	3	4	5	6	7	8	9	10
AIC	6.19	6.29	6.35	6.38	6.42	6.34	6.40	6.39	6.40	6.45
SC	6.38	6.60	6.79	6.95	7.13	7.17	7.37	7.50	7.65	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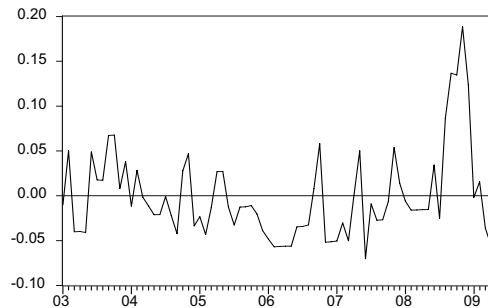
공적분 벡터수가 1이라는 것은  $\Pi = \alpha\beta'$  가 되도록 하는  $2 \times 1$ 행렬의  $\alpha$ 와  $\beta$ 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Y_t$  자체는 불안정적일지라도 안정적인 선형결합  $\beta' Y_t$ 가 존재하게 된다. 즉, 두 변수간에 장기적인 선형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공적분 벡터의 수가 1인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계열 자료의 추세여부와 관계없이 공적분 벡터 수가 0개인 귀무가설( $R=0$ )은 LR통계량이 5%유의수준하에서 임계치보다 크므로 기각되었다. 반면, 공적분 벡터의 수가 최대 1이라는 귀무가설은 5%유의수준하에서 기각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중소기업 어음부도율과 금리, 환율 및 원자재가격(원유, 나프타, 유연탄)변수간에는 1개의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중소기업 어음부도율과 금리간에는 (-)의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였으며, 중소기업 어음부도율과 나머지 변수간에는 (+)의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는데, 중소기업 어음부도율과 각 변수들간의 공적분 관계가 [그림 4-15]에 나타나 있다.

<표 4-11> 2개 변수의 공적분 검정결과 및 장기균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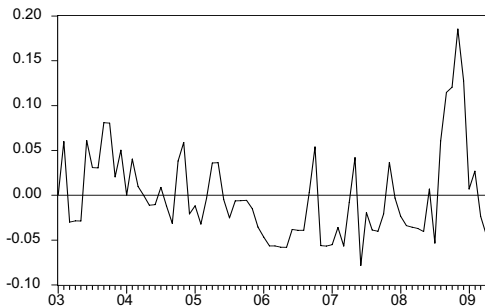
구분	자료의 추세가정	공적분 수 (Rank)	Log Likelihood	장기균형식(No. of CE)
$dbrc_t, cr_t$	선형추세	1	197.231	$dbrc_t = 0.1199 - 0.0002@T - 0.0069cr_t$
$dbrc_t, ex_t$	선형추세	1	-205.597	$dbrc_t = -0.0191 - 0.0006@T + 0.0001ex_t$
$dbrc_t, oil_t$	추세없음	1	-76.938	$dbrc_t = 0.0722 + 0.0002oil_t$
$dbrc_t, nafta_t$	선형추세	1	-241.650	$dbrc_t = 0.0807 - 0.0007@T + 5.61E-05nafta_t$
$dbrc_t, sc_t$	선형추세	1	-225.558	$dbrc_t = 0.0770 - 0.0015@T + 0.0006sc_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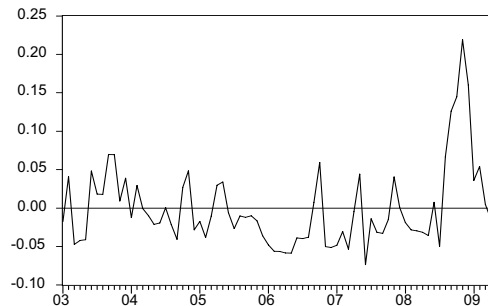
충남 어음부도율과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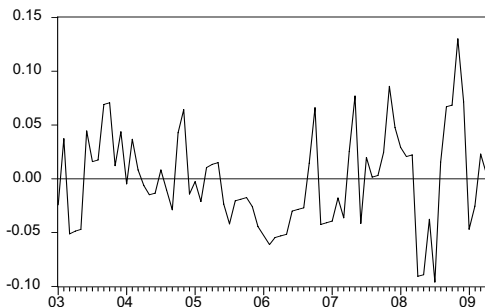
충남어음부도율과 콜금리



충남 어음부도율과 원유가격



충남 어음부도율과 나프타 가격



충남 어음부도율과 유연탄가격

[그림 4-15] 중소기업 어음부도율과 금리, 환율 및 원자재가격 변수간 공적분 관계

### (3) 벡터오차수정모형에 의한 동태분석

실증분석에 사용한 모든 변수들이 자연대수와 1차 차분 후 I(1)계열의 안정적인 시계열이고, 중소기업 어음부도율과 금리, 환율 및 원자재가격변수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므로 공적분 검정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VECM을 설정한 후, 추정하였다.

$$\Delta Y_t = \sum_{i=1}^{k-1} \Gamma_i \Delta Y_{t-i} + \Pi Y_{t-1} + \epsilon_t \dots \dots \dots (3)$$

본 연구에서는 (3)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어음부도율과 금리, 환율 및 원자재가격 변수로 구성되는 다음의 벡터오차수정모형을 구성하였다.

$$\begin{bmatrix} \Delta dbrc_t \\ \Delta cr_t \end{bmatrix} = \sum_{i=1}^{k-1} [\Gamma_i] \begin{bmatrix} \Delta dbrc_t \\ \Delta cr_t \end{bmatrix} + [\Pi_i] \begin{bmatrix} dbrc_t \\ cr_t \end{bmatrix} + \begin{bmatrix} \mu_{dbrc,t} \\ \mu_{cr,t} \end{bmatrix} + \begin{bmatrix} \epsilon_{dbrc,t} \\ \epsilon_{cr,t} \end{bmatrix} \dots \dots \dots (4)$$

$$\begin{bmatrix} \Delta dbrc_t \\ \Delta ex_t \end{bmatrix} = \sum_{i=1}^{k-1} [\Gamma_i] \begin{bmatrix} \Delta dbrc_t \\ \Delta ex_t \end{bmatrix} + [\Pi_i] \begin{bmatrix} dbrc_t \\ ex_t \end{bmatrix} + \begin{bmatrix} \mu_{dbrc,t} \\ \mu_{ex,t} \end{bmatrix} + \begin{bmatrix} \epsilon_{dbrc,t} \\ \epsilon_{ex,t} \end{bmatrix} \dots \dots \dots (5)$$

$$\begin{bmatrix} \Delta dbrc_t \\ \Delta oil_t \end{bmatrix} = \sum_{i=1}^{k-1} [\Gamma_i] \begin{bmatrix} \Delta dbrc_t \\ \Delta oil_t \end{bmatrix} + [\Pi_i] \begin{bmatrix} dbrc_t \\ oil_t \end{bmatrix} + \begin{bmatrix} \mu_{dbrc,t} \\ \mu_{oil,t} \end{bmatrix} + \begin{bmatrix} \epsilon_{dbrc,t} \\ \epsilon_{oil,t} \end{bmatrix} \dots \dots \dots (6)$$

$$\begin{bmatrix} \Delta dbrc_t \\ \Delta nafta_t \end{bmatrix} = \sum_{i=1}^{k-1} [\Gamma_i] \begin{bmatrix} \Delta dbrc_t \\ \Delta nafta_t \end{bmatrix} + [\Pi_i] \begin{bmatrix} dbrc_t \\ nafta_t \end{bmatrix} + \begin{bmatrix} \mu_{dbrc,t} \\ \mu_{nafta,t} \end{bmatrix} + \begin{bmatrix} \epsilon_{dbrc,t} \\ \epsilon_{nafta,t} \end{bmatrix} \dots \dots \dots (7)$$

$$\begin{bmatrix} \Delta dbrc_t \\ \Delta sc_t \end{bmatrix} = \sum_{i=1}^{k-1} [\Gamma_i] \begin{bmatrix} \Delta dbrc_t \\ \Delta sc_t \end{bmatrix} + [\Pi_i] \begin{bmatrix} dbrc_t \\ sc_t \end{bmatrix} + \begin{bmatrix} \mu_{dbrc,t} \\ \mu_{sc,t} \end{bmatrix} + \begin{bmatrix} \epsilon_{dbrc,t} \\ \epsilon_{sc,t} \end{bmatrix} \dots \dots \dots (8)$$

따라서 (3)식을 기본으로 한 (4), (5), (6), (7)식에서  $\mu$  벡터는 (2×1)상수항 벡터,  $\epsilon_t$  는 (2×2)가우시안 백색오차 벡터이며,  $\Gamma_i$  는 (2×2)행렬로서  $i$  번째 시차에서 2개 방정식간의 단기조정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계수행렬  $\Pi = \alpha\beta'$  는 중소기업 어음부도율과 금리, 환율 및 원자재가격간의 장기적 균형관계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조정속도계수  $\alpha$  와 공적분벡터  $\beta$  는 (2×1)벡터이다. 이상의 벡터오차수정모형 추정결과가 <표 4-12>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 중소기업어음부도율과 금리, 원유가격, 나프타가격은 모두 조정속도 ( $\alpha$ )계수의 부호가 (-)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소기업어음부도율과 금리,



원유가격, 나프타가격은 장기수준보다 커지면(작아지면) 다음기에는 작아지는(커지는)방향으로 수정되고자 하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어음부도율과 환율 및 유연탄가격은 조정속도( $\alpha$ )계수의 부호가 각각 (-)와 (+)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소기업어음부도율과 환율 및 유연탄가격은 장기수준보다 커지면(작아지면) 다음기에는 커지는(작아지는)방향으로 수정되고자 하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다.

〈표 4-12〉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의 추정결과

구 분 변 수	추세준제(상수항)		구 분 변 수	추세준제(상수항)		구 분 변 수	추세준제(상수항)		구 분 변 수	추세준제(상수항)	
	$\Delta dbrc_t$	$\Delta cr_t$		$\Delta dbrc_t$	$\Delta ex_t$		$\Delta dbrc_t$	$\Delta oil_t$		$\Delta dbrc_t$	$\Delta nafta_t$
오차수정	-0.255 (0.26) [-1.80]	-1.957 (0.38) [-5.12]	오차수정	-0.490 (0.15) [-3.34]	463.219 (111.24) [4.16]	오차수정	-0.594 (0.12) [-5.08]	-5.666 (15.65) [-0.36]	오차수정	-0.418 (0.118) [-3.545]	-239.69 (161.97) [-1.48]
$\Delta dbrc_{t-1}$	-0.143 (0.15) [-0.98]	0.330 (0.39) [0.84]	$\Delta dbrc_{t-1}$	0.035 (0.14) [0.25]	-178.38 (105.44) [-1.69]	$\Delta dbrc_{t-1}$	-0.009 (0.11) [-0.09]	-14.019 (14.62) [-0.96]		-0.069 (0.11) [-0.61]	-205.98 (155.63) [-1.32]
$\Delta cr_{t-1}$	0.322 (0.03) [0.98]	0.492 (0.09) [5.56]	$\Delta dbrc_{t-2}$	0.028 (0.120) [0.237]	-106.66 (91.246) [-1.17]	$\Delta oil_{t-1}$	-0.003 (0.00) [-3.21]	0.591 (0.114) [5.192]		-0.088 (0.11) [-0.83]	-178.95 (145.55) [-1.23]
상수항	-0.0002 (0.00) [-0.06]	-0.017 (0.01) [-1.33]	$\Delta ex_{t-1}$	4.0E-04 (0.00) [2.43]	0.3967 (0.121) [3.29]	상수항	-0.001 (0.004) [-0.168]	0.124 (0.577) [0.215]		-3.2E-04 (8.2E -05) [-3.93]	0.697 (0.113) [6.18]
-	-	-	$\Delta ex_{t-2}$	-6.78E-05 (0.00) [0.41]	-0.501 (0.13) [-4.0]	-	-	-		1.43E-04 (9.1E-05) [1.56]	-0.418 (0.13) [-3.34]
-	-	-	상수항	-0.001 (0.00) [-0.29]	1.602 (3.48) [0.46]	-	-	-	상수항	-4.3E-05 (0.00) [-0.01]	1.483 (5.76) [0.26]

주: 1)  $\Delta dbrc_{t-i}$ ,  $\Delta cr_{t-i}$ ,  $\Delta ex_{t-i}$ ,  $\Delta oil_{t-i}$ ,  $\Delta nafta_{t-i}$ ,  $\Delta sc_{t-i}$ 의 각 단기조정계수는 자기회귀항( $\tau_i$ )의 계수임.

2) ( ) 내는 표준오차이며, [ ] 내는 t-통계량을 나타냄.

<표 4-13> VECM 추정결과

구분	조정속도 ( $\alpha$ ) 부호	설명
중소기업어음부도율과 금리, 원유가격, 나프타가격	(-)	장기수준보다 커지면(작아지면) 다음기에는 작아지는(커지는) 방향으로 수정되고자 하는 힘이 작용
중소기업어음부도율과 환율, 유연탄가격	(+)	장기수준보다 커지면(작아지면) 다음기에도 커지는(작아지는) 방향으로 수정되고자 하는 힘이 작용

#### (4) 충격반응함수의 추정

중소기업 어음부도율과 금리, 환율 및 원자재가격변수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VECM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오차항의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의 추세여부를 감안하여 공적분 방정식에 상수항을 포함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또한 Johansen 공적분 검정에 의해 공적분 벡터를 1로 선택하여 설정한 VECM을 바탕으로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한 것이 [그림 4-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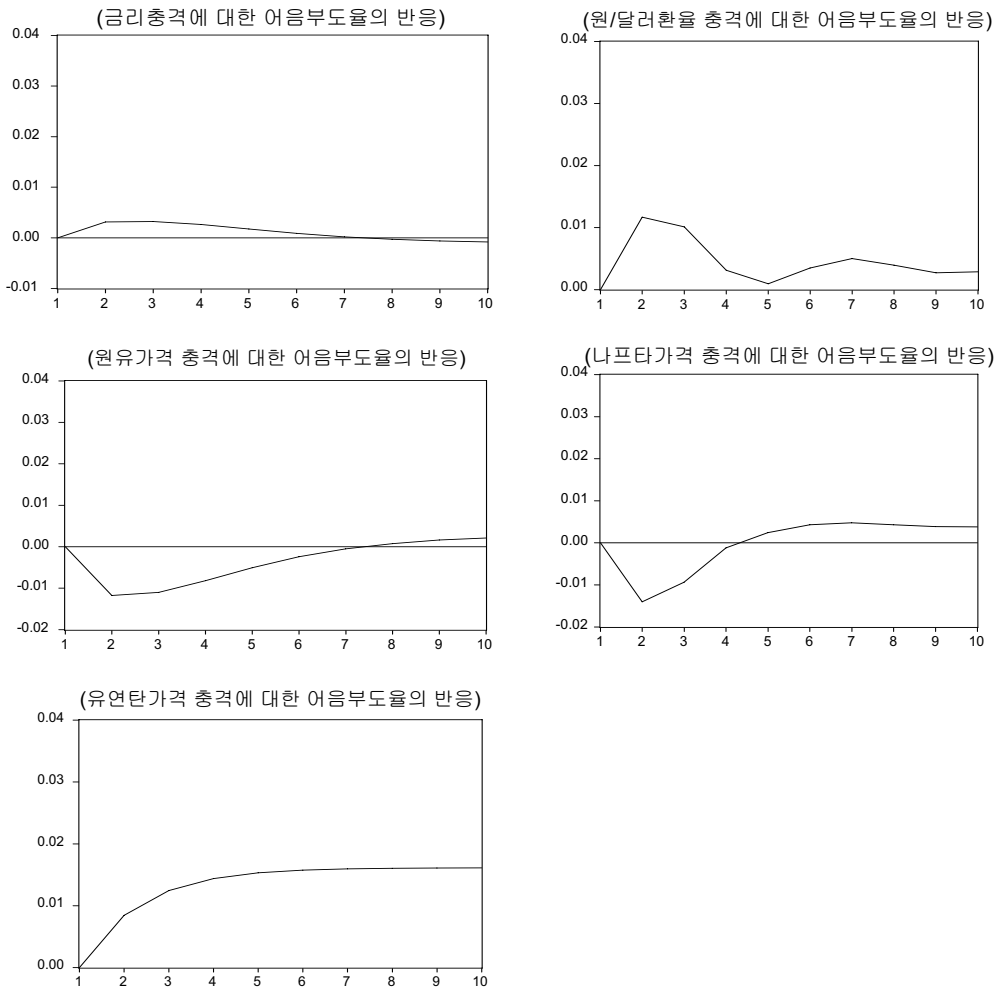
그림에서는 각 변수 오차항 충격에 대한 어음부도율변수의 반응함수가 나타나 있다. 이는 내생변수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로 각각의 충격이 자신의 표준편차의 크기로 주어질 때, 내생변수들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4> 각 변수 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충격반응함수 추정 결과)

충격	어음부도율 변수의 반응
금리 충격	최초 충격 이후 1개월까지 가장 큰 충격을 받음 7개월 이후에는 금리충격이 소멸
환율 충격	최초 충격 이후 1개월까지 가장 큰 충격을 받음 환율충격은 10개월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인
유가, 나프타가격 충격	최초 충격 이후 1개월까지 가장 큰 충격을 받음 유가 및 나프타 가격충격은 10개월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인
유연탄 가격 충격	최초 충격 이후 3개월까지 계속 커짐 유연탄 가격충격은 10개월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인

먼저 금리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 충격 이후 1개월까지가 가장 컸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나, 7개월 이후에는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충격 이후 1개월까지가 가장 컸으며, 10개월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와 나프타가격 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은 1개월까지가 가장 컸으며, 10개월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유연탄 가격 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은 3개월까지 계속 커지며, 10개월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 충격반응함수의 추정

### 3. 충남 중소기업 애로요인 및 지원실태 분석

#### 1) 충남 중소기업 애로요인 조사

##### (1) 조사개요

조사내용은 「경기침체의 현장체감도」, 「고환율에 따른 애로사항」, 「원자재 구매시 애로사항」, 「회사의 일반현황」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 측정 지표를 마련하였다. 조사대상은 충남도내 중소기업체 총 423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 8월 3일~21일까지 3주간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도내 총 423개 업체 중 102개 업체가 설문에 응하여 총 24.1%의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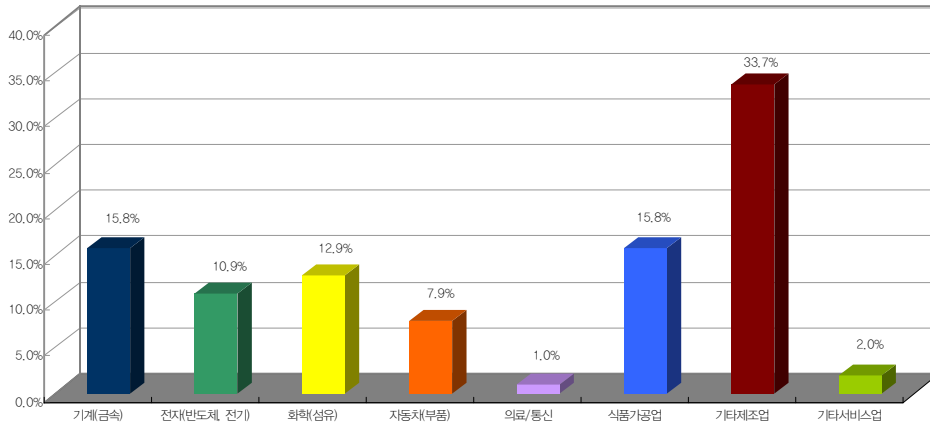
<표 4-15> 설문조사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설문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침체의 현장체감도</li> <li>· 고환율에 따른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li> <li>· 원자재 구매 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li> </ul>
조사대상	· 도내 총 423개 업체
조사기간	· 2009년 8월 3일~8월 21일(3주간)
조사방법	· 우편조사
응답률	· 102개 업체(24.1%)

설문을 응답한 총 102개의 기업 중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10~49인)이 64개 업체(62.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소상공인(1~9인) 24개 업체(23.5%), 중기업(50인 이상) 13개업체(12.7%) 등의 순서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기타제조업이 34개 업체로 전체 중 33.7%를 차지하였고 식품가공업 16개 업체(15.8), 기계(금속) 16개 업체(15.8%), 화학(섬유) 13개업체(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업력은 10년 이상이 53개 업체(52.5%)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5년 미만인 18개 업체(17.8%), 5년 이상 7년 미만인 11개 업체(10.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설문조사의 응답이 고루 분포하였다. 기업마케팅의 중점적인 부분은 수출비중 30% 미만인 내수기업이 총 응답기업의 80.0%였으며 수출기업이 15.0%, 기타가 5.0% 순으로 분포를 보였

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내수 50%, 수출 50%의 기업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판매형태로는 주문생산판매가 총 50개 업체로 50.5%를 차지하였으며 혼합시장 판매 33개업체(33.3%), 일반시장판매 16개업체(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 설문대상기업 업종

<표 4-16>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수 (명)	구성비 (%)	구분		사례수 (명)	구성비 (%)
규모	전체	101	100.0	업력	신생및창업기업(3년미만)	10	9.9
	소상공인(1~9인)	24	23.8		3년이상5년미만	18	17.8
	소기업(10~49인)	64	63.4		5년이상7년미만	11	10.9
	중기업(50인이상)	13	12.9		7년이상10년미만	9	8.9
업종	기계(금속)	16	15.8	마케팅	10년이상	53	52.5
	전자(반도체, 전기)	11	10.9		내수(수출비중30%미만)	80	80.0
	화학(섬유)	13	12.9		수출(수출비중30%이상)	15	15.0
	자동차(부품)	8	7.9		기타	5	5.0
	의료/통신	1	1.0	판매 형태	주문생산판매	50	50.5
	식품가공업	16	15.8		일반시장판매	16	16.2
	기타제조업	34	33.7		혼합시장판매	33	33.3
	기타서비스업	2	2.0				

## (2)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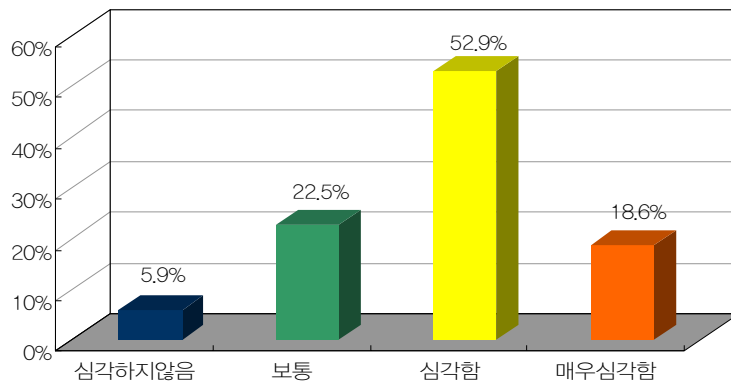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현재 경영 상태에 대한 응답은 어렵다는 응답이 31.0%로 31개 업체가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52.9%로 54개 업체가 응답하였다. 전년 대비 경영 상태에 대한 응답으로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43개 업체로 전체 응답 중

43%를 차지하였으며 보통이 33.3%인 34개 업체가 응답하였고, 전년에 비하여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는 중소기업체에서 대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기업 외적요인인 환율/원자재가격 상승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환율 및 원자재 가격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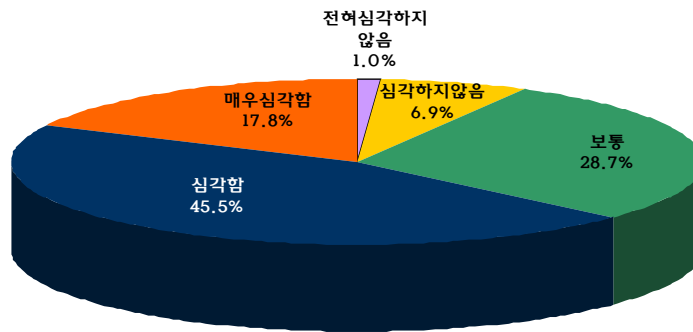
## Ⅰ 경기침체에 대한 현장체감도

현재의 경기침체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은 52.9%인 54명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 23명(22.5%), 매우 심각함 19명(18.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비중에 따른 심각성 정도는 내수기업은 70.0%가 심각하다 응답하였으나 수출기업은 86.6%가 심각하다는 응답을 하여 수출기업이 상대적으로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8] 경기침체 정도

경기침체가 기업에 미친 영향의 정도는 총 응답률의 45.5%인 46개 업체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8개 업체(17.8%)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의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총 15개 업체 중 12개(80.0%) 업체가 응답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9] 경기침체가 기업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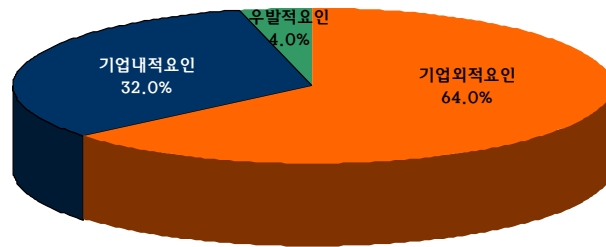
또한 직종별로는 모든 업종에서 경기침체가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화학(섬유)업체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자(반도체·전기)업체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54.5%로 타 업종에 비하여 경기침체가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사료된다.

<표 4-17> 경기침체가 기업에 미친 영향(업종별)

구분	전체	전혀 심각하지 않음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매우 심각함
전체	101 (100.0%)	1 (1.0%)	7 (6.9%)	29 (28.7%)	46 (45.5%)	18 (17.8%)
기계(금속)	16 (100.0%)	- (0.0%)	1 (6.3%)	6.0 (37.5%)	6 (37.5%)	3.0 (18.8%)
전자(반도체, 전기)	11 (100.0%)	1.0 (9.1%)	2 (18.2%)	3.0 (27.3%)	4 (36.4%)	1.0 (9.1%)
화학(섬유)	13 (100.0%)	- (0.0%)	- (0.0%)	2.0 (15.4%)	9 (69.2%)	2.0 (15.4%)
자동차(부품)	8 (100.0%)	- (0.0%)	1 (12.5%)	2.0 (25.0%)	4 (50.0%)	1.0 (12.5%)
의료/통신	1 (100.0%)	- (0.0%)	- (0.0%)	- (0.0%)	1 (100.0%)	- (0.0%)
식품가공업	16 (100.0%)	0 (0.0%)	1 (6.3%)	7 (43.8%)	5 (31.3%)	3 (18.8%)
기타제조업	34 (100.0%)	0 (0.0%)	2 (5.9%)	9 (26.5%)	16 (47.1%)	7 (20.6%)
기타서비스업	2 (100.0%)	0 (0.0%)	- (0.0%)	0 (0.0%)	1 (50.0%)	1 (50.0%)



경기침체가 경영애로에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는 기업외적요인이 63.6%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내적요인 32.3%, 우발적요인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향원인에 대해서 기업의 업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신생기업일수록 기업외적요인이 많았으나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경우 기업 내적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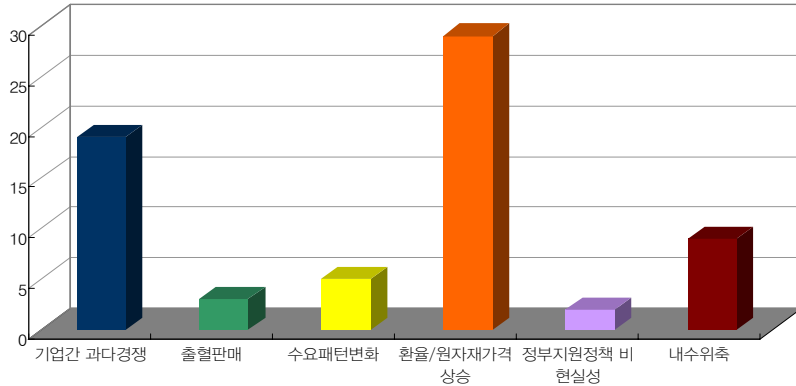


[그림 4-20] 경기침체가 경영애로에 미친 영향 원인

기업 외적요인 중 환율/원자재가격상승이 43.3%(29개 업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기업간 과다경쟁 28.4%(19개 업체), 내수위축 13.4%(9개 업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외적요인 중 내수기업은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이 많았던 반면 수출기업은 기업간 과다경쟁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 기업별로 경영애로에 대한 원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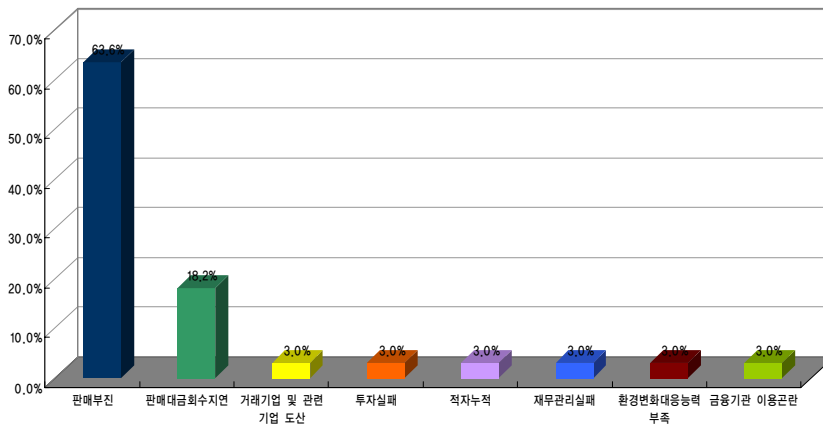
<표 4-18> 경기침체가 기업에 미친 영향(업력)

구분	영향원인			
	전체	기업외적요인	기업내적요인	우발적요인
전체	101 (100.0%)	65 (64.4%)	32 (31.7%)	4 (4.0%)
신생및창업기업(3년미만)	10 (100.0%)	8 (80.0%)	2 (20.0%)	0 (0.0%)
3년이상5년미만	18 (100.0%)	15 (83.3%)	3 (16.7%)	0 (0.0%)
5년이상7년미만	11 (100.0%)	8 (72.7%)	3 (27.3%)	0 (0.0%)
7년이상10년미만	9 (100.0%)	3 (33.3%)	3 (33.3%)	3 (33.3%)
10년이상	53 (100.0%)	31 (58.5%)	21 (39.6%)	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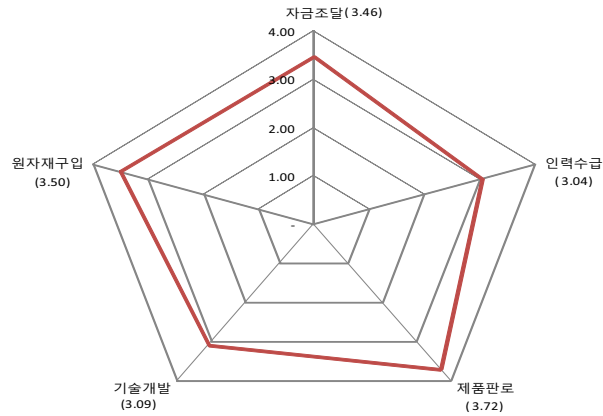
[그림 4-21] 기업외적요인

기업 내적요인으로서는 판매부진(수출 및 내수)로 응답한 비율이 63.6%(21개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대금 회수지연(18.2%(6개 업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기업 및 관련기업 도산, 투자실패(과잉설비투자), 적자누적, 재무관리실패, 환경변화 대응능력부족, 금융기관 이용 곤란 등이 모두 1개업체(3.0%)가 응답하였으며 기업 내부요인으로서는 수출 및 내수를 원인으로 한 판매부진 및 이에 따른 판매대금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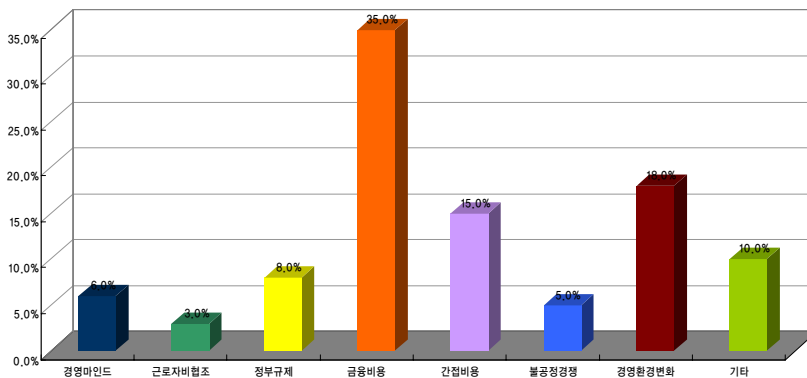
[그림 4-22] 기업내적요인

경기침체 원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 비슷한 응답을 보였으나 제품판로부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금 조달 및 원자재 구입부분 또한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림 4-23] 경기침체원인

기업이 경영애로를 겪는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금융비용이 35.0%(36개 업체)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경영환경변화(18.0%, 18개 업체), 간접비용(15.0%, 15개 업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규제(8.0%, 8개 업체)나 경영자의 경영마인드(6.0%, 6개 업체)라고 응답한 비율도 비교적 높았고, 기타의견도 10.0%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원자재 값 상승, 수주격감, 경쟁업체의 비국산화를 통한 가격 하락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림 4-24] 기업경영애로의 직접적 원인

향후 경제여건 전망에 대한 응답으로는 나아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81.4%로 많은 기업들이 향후 경제여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기업의 경우 내수기업에 비해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총 15개 업체 중 6개 업체로 40.0%가 부정적 응답을 하여 경기침체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향후 경제여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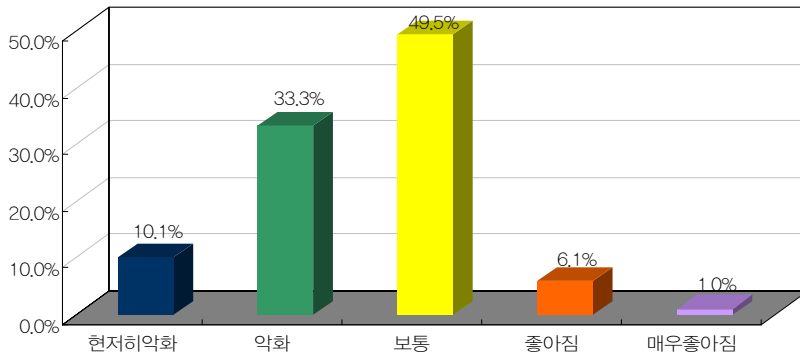
구분	경제여건전망					
	전체	전혀나아 지지않음	나아지지 않음	보통	나아질것 임	매우 나아질것 임
전체	100 (100.0%)	1 (1.0%)	18 (18.0%)	33 (33.0%)	39 (39.0%)	9 (9.0%)
내수(수출비중30%미만)	80 (100.0%)	1 (1.3%)	10 (12.5%)	28 (35.0%)	35 (43.8%)	6 (7.5%)
수출(수출비중30%이상)	15 (100.0%)	0 (0.0%)	6 (40.0%)	5 (33.3%)	2 (13.3%)	2 (13.3%)
기타	5 (100.0%)	0 (0.0%)	2 (40.0%)	0 (0.0%)	2 (40.0%)	1 (20.0%)

## ② 고환율에 따른 애로사항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및 고환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소기업인이 체감하고 있는 고환율에 따른 애로사항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고환율에 따른 제품의 가격 경쟁력 변화에 대한 문항에 이전과 같다는 응답이 49개 업체로 전체 응답의 49.5%를 차지하였으며 악화되었다가 33개 업체(33.3%), 현저히 악화되었다가 10개 업체(10.1%)의 순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고환율에 따른 경쟁력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업체는 7개 업체(7.1%)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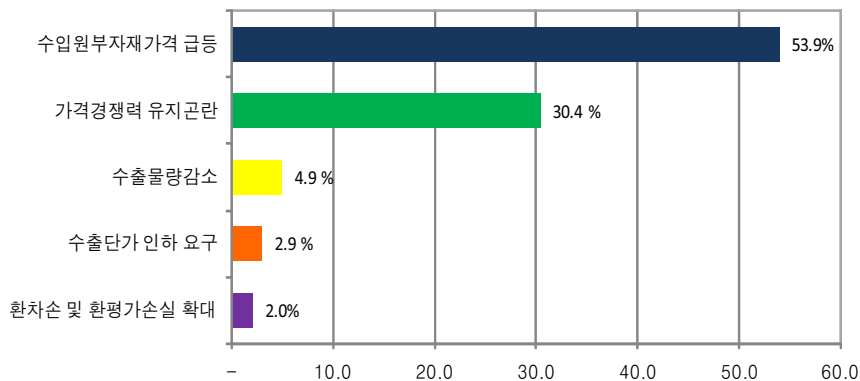
업종 중 화학(섬유)은 총 11개 업체 중 보통이 5개 업체, 좋아짐 2개 업체, 매우 좋아짐이 1개 업체로 타 업종에 비하여 고환율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 사태를 대응함에 있어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는 수입 및 수출시장 다변화의 어려움이 41.7%(40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 개발 및 품질수준 향상의 한계 21.9%(21개 업체), 환율변화에 대한 정보 부족 17.7%(17개업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5] 고환율에 따른 가격경쟁력 변화

고환율 추세의 지속시 기업에서 겪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는 수입 원부자재 가격의 급등이 57.3%(55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경쟁력 유지곤란 32.3%(31개 업체), 수출 물량감소 5.2%(5개 업체), 수출단가 인하요구 3.1%(3개 업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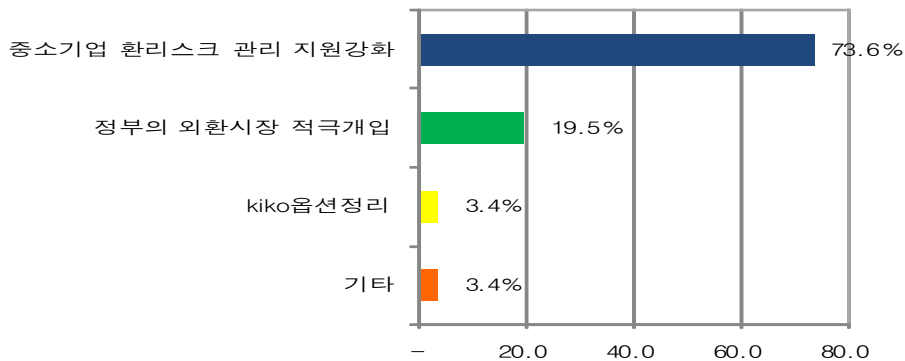
[그림 4-26] 고환율 지속시 애로요인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최소화를 위한 '환위험관리'<sup>6)</sup> 실시 여부는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45개로 전체 응답의 47.4%이며 향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는 업체는 28개 업체로 29.5%이다. 그러나 전체 9.5%인 9개 업체가 환위험관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이는 환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6) 환위험 관리 [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 : 환위험의 중요한 개념적 특징은 미래 '예상하지 못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변동가능성으로 환위험관리는 이러한 환율변동 위험을 체계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위험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것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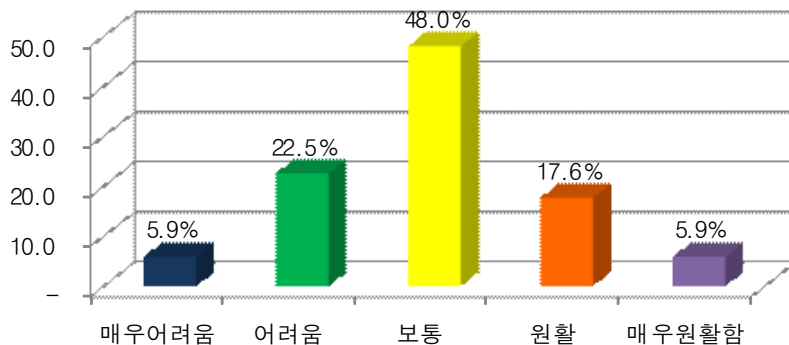
고환율 추세 지속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대책에 대한 응답으로는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지원강화 필요가 73.6%(64개업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정부의 외환 시장 적극개입이 19.5%, KIKO옵션정리 3.4%(3개업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7] 고환율 지속시 정부대책

### ③ 원자재 구매 시 애로사항

최근 원자재 수급사정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 48.0%(49개업체)로 가장 높았으며 어려움이 22.5%(23개업체), 원활함이 17.6%(18개업체) 등으로 나타나 원자재수급에 대한 어려움은 초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 4-28] 원자재 수급사정

기업규모별 원자재구매 수급사정은 소상공인기업이 11개업체, 소기업 15개 등으로 50인 이상이 중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마케팅별 수급사정은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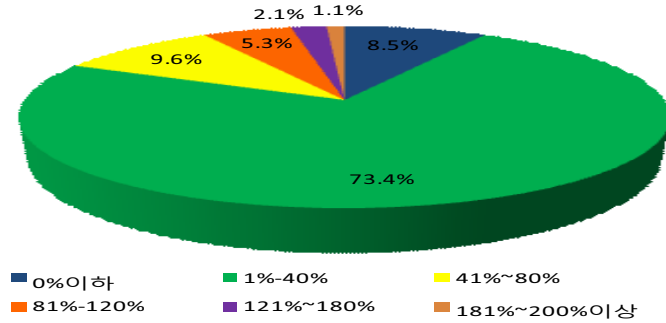
<표 4-20> 원자재 수급사정(마케팅)

구분		전체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원활	매우 원활함
마 케 팅	내수 (수출비중30%미만)	80 (100.0%)	3 (3.8%)	18 (22.5%)	40 (50.0%)	16 (20.0%)	3 (3.8%)
	수출 (수출비중30%이상)	15 (100.0%)	2 (13.3%)	4 (26.7%)	7 (46.7%)	2 (13.3%)	- (-)
	기타	5 (100.0%)	1 (20.0%)	1 (20.0%)	1 (20.0%)	- (-)	2 (40.0%)
전체		100 (100.0%)	6 (6.0%)	23 (23.0%)	48 (48.0%)	18 (18.0%)	5 (5.0%)

주요 원자재매입처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21.7%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점 및 도매업체 23.8%, 대기업 17.8%, 해외조달 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체 생산의 경우 소상공인 1개업체와 소기업 4개업체가 자체생산을 통하여 조달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기업의 경우 대기업 또는 대기업 및 도매업체를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원자재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40%~200%까지 다양한 응답이 분포하였으며 20% 이상 증가가 전체 응답 중 18.9%로 가장 많아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자(반도체, 전기)업체에서 전년대비 원자재 가격이 200% 상승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타제조업 150% 증가, 식품가공업 120% 증가 등으로 응답하여 제조업 분야이 원자재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의 규모별로는 소상공인(1~9인)이 가장 가격변동이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소기업 또한 대체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많았다.

원자재수급난으로 인하여 기업이 겪는 애로요인에 대한 응답으로는 채산성악화가 42.9%인 42개가 응답하였으며 경영난 악화 20.4%(20개업체), 납품기일지연, 공장가동률저하 등이 각각 15.3%(15개업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9] 원자재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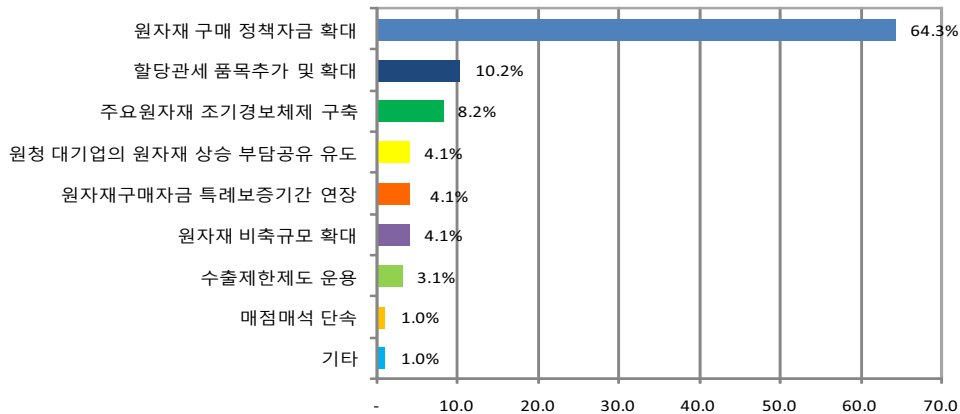
원자재수급에 대한 애로요인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소상공인이 경우 채산성악화 및 경영난 악화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았으나 소기업의 경우 채산성악화, 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응답이 높았다. 또한 종업원 50인 이상의 중기업의 경우 채산성악화와 더불어 납품기일지연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급난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대책으로는 조업일시단축이 54.9%(56개 업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업일시중단 14.7%(15개업체), 해외이전이 3.9%(4개업체) 등이 순으로 나타났으며 3개업체의 경우 사업청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한 애로요인

구분	전체	공장가동률저하	채산성악화	경영난악화	납품기일지연	기타
소상공인 (1~9인)	23 (100.0%)	1 (4.3%)	13 (56.5%)	5 (21.7%)	2 (8.7%)	2 (8.7%)
소기업 (10~49인)	62 (100.0%)	12 (19.4%)	25 (40.3%)	12 (19.4%)	9 (14.5%)	4 (6.5%)
중기업 (50인이상)	13 (100.0%)	2 (15.4%)	4 (30.8%)	3 (23.1%)	4 (30.8%)	- (0.0%)
전체	98 (100.0%)	15 (15.3%)	42 (42.9%)	20 (20.4%)	15 (15.3%)	6 (6.1%)

원자재수급난과 관련하여 정부에 요청하고자 하는 지원요망사항이 경우 전체 36.3%의 응답률을 보인 원자재구매대금 이용조건이 완화를 통한 저리 용자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 납품단가의 적정화 19.6%(20개업체), 수입원자재 관세 인하품목 확대 9.8%(10개업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재 구매 정보망 구축 및 홍보와 조달청 비축물량의 중소기업의 우선판매 등도 비교적 높게 응답되었다.





[그림 4-30] 원자재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정부대책

이와 더불어 원자재난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으로는 원자재구매 정책자금의 확대가 전체응답 중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원자재자금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재구매자금 특례보증기간의 연장이 7.8%, 원청 대기업의 원자재 상승 부담공유 유도가 7.8%로 정부정책은 금융 및 자금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 2) 경기극복을 위한 충남 중소기업 지원사업 실태

### (1) 경영안정 자금 지원

충청남도는 금융위기로 인한 여파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자보전방식의 저리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경영안정 자금은 총 2,500억원의 규모로 도내 중소제조업으로 전업률 30% 이상의 공장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3억원을 지원하며,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수출업체에게는 5억원까지 지원한다.

2008년에는 대출금리 중 2.0%~3.0%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373업체에 총 980억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일반 업체는 3억원, 연간 10억원 이상 수출업체에는 5억원을 한도로 대출금리 중 1.75%~2.0%를 도에서 이자를 보전하며, 대추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토록 하고 있다. 지원은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

며, 유망중소·선도·기업인대회수상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등에는 1.0% 추가 지원하여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이자보전방식의 저리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자금지원은 다수업체에 자금수혜 혜택을 부여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 기업회생 자금 지원

기업회생 자금 지원은 천재지변과 장기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 애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여건 및 환경 변화에 적기 지원하여 조기에 경영 정상화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10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원부자재 구입, 경영 기술혁신, 기술도입 및 사업화, 재해복구,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 자금이다. 2008년에는 3개의 업체에 13억원이 4.0%(변동금리)의 대출금리로 융자되었으며, 2009년에는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연리 4.0%(변동금리)로 지원되며, 1년 거치에 2년 균분상환하는 방식이다.

## (3)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도 정책자금 상환유예 지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여파가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지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자 충청남도는 지자체 최초로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도 정책자금의 상환유예를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다. 유예기간은 2009년 말까지로 도내 2,429업체 4,812억원이 그 대상이며, 지원자금 상환기업 및 상환도래 기업 1,762업체 3,208억원, 경영안정자금 재 지원 제한기간 해지 667업체 1,604억원이 이에 해당한다. 단, 정책자금 융자 만기일자에는 변동이 없다.

도 정책자금 상환유예는 매 분기 말 분할상환금(원금)이 유예되는 방식이며 도 이자보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추진방법은 상황유예 신청이 대출금액과 상환시기, 상환금액, 대출은행 등이 검토되며, 경영안정 및 기업회생 자금은 충청남도에서, 창업·경쟁력 강화 및 혁신형 자금은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승인하여 기업과 은행으로 승인통보된다. 상환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에는 유동성자금이 지원되고, 상환연체 사전 방지로 신용도 및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 (4) 영세 소상공인 신용보증 확대

충청남도는 도내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등 우량신용 등급의 업체들의 보증을 확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사나 주 사업장이 충남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보증수수료 연 0.5%~2%로 업체당 최고 4억원 이내에서 제조업체,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 충남중소기업육성 기금으로 자금지원을 받는 업체를 보증하고 있다. 보증기간은 1년이 원칙이며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2008년에는 7,878업체에 1,886억원을 보증 공급 하였으며, 2009년에는 8,100건 2,000억원 보증 공급이 목표로 충청남도 정책자금(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추천업체와 자영업자 유동성자금 특례보증 추진 업체가 중점 추진 대상이다. 보증은 대출보증, 비은행 대출보증, 어음보증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및 정책자금이 우선 보증된다. 영세 소상공인 신용보증 확대를 통해 원활한 자금유통을 통한 유동성자금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5)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열고자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매기회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직거래 및 사업자간 구매상담회를 추진하는 정책 또한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사업비는 약 4억원으로 설·추석 직거래장, 전기박람회 참가, 판매전 및 구매상담회, 홈페이지 구축, 이업종 프라자, 산업디자인 등에 소요되고 있다. 2008년에는 설·추석 직거래장을 2회 개최하여 113업체가 참가, 2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5회의 전시박람회에 참가하여 매출액 약 1억 5천만원과 약 4억 4천만원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구매상담회 2회를 개최하여 입점 18업체에 상담액이 10억여원에 이르며, 홈페이지 구축 40업체와 이업종프라자 지원, 산업디자인 대전을 개최하였다.

2009년에도 설·추석 선물용품 직거래장 개최, 판매기획전 및 구매상담회 개최,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제품박람회 참가지원, 홈페이지 구축지원, 이업종 프라자 지원, 산업디자인 대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촉진하고, 새로운 판로시

장 개적으로 판매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 (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이행을 확대하여 판로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제품 판매촉진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공공구매제도 이행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판매촉진하고 지역제품 판로를 확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08년에는 시·군 「기업활동 지원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시·군 부단체장 회의 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촉구하고 도, 시·군 구매·계약담당 공무원을 교육하였다.

2009년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대상기관을 도, 시·군에서 도 산하 및 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실무교육 및 구매기관과 업체대표의 간담회를 개최토록 했다. 분기별로 「공공구매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하였으며, 감사부서의 협조를 통해 공사용자재를 직접(분리)구매를 이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5%)를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를 촉진토록 하였으며, 감사부서의 사전·사후 관리감독을 통해 이행력을 확보하고, 시·군 「지역제품 팔아주기」 기업지원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표 4-22> 경기극복을 위한 충남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업명	경기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주요내용	2008 실적	2008년 지원규모	2009년 지원규모	지원규모 증감율
1. 중소기업 금융지원	경영안정 자금 지원	이자보전방식 저리자금 지원	373업체 980억원	1,700억원 (8.61%)	2,500억원 (21.2%)	
	기업회생 자금 지원	경영 애로기업에 대한 자금 적시 지원	3업체 13억원	100억원 (0.51%)	100억원 (0.85%)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도 정책자금 상환유예	도 정책자금 상환유예 한시적 시행		-	2,429업체 4,812억원	
	영세 소상공인 신용보증 확대	채무보증 및 보증 확대	7,878업체 1,886억원	3,900건 1,500억원	8,100건 2,000억원	
2. 중소기업제품 판로 및 수출지원 확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홍보, 판매기회 제공, 구매상담회 추진	매출액 223백만원 수출계약 435백만원 상담액 1,010백만원	236백만원 (0.01%)	393백만원 (0.0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판로 확충 및 지역제품 판매촉진	중소기업 공공구매 촉구 계약담당 공무원 교육 관련조례 제정 추진	-	-	-

## 4.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실물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의 산업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생산, 출하, 재고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격히 악화되었다. 또한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 악화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대출금 상환을 어렵게 하여 은행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저하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어음부도율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중소기업 어음부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상승,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과 같은 외부충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하여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은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로 인해 겪는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환위험 관리지원 및 원자재 구매대금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도내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촉발 내지는 가중시킨 주요 원인인 환율 및 원자재가 상승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경영애로요인 해소위주의 지원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차원에서 환위험관리 및 원자재 구매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만, 환율과 원자재 가격변수의 통제(control) 및 이와 관련한 정책수단은 국가정책영역임을 감안하여 이와 연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 제5장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남 중소기업 지원방안

### 1.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탄력적 운용

#### 1) 경기대응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 및 규모 확대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환율 변동성 확대와 유가 및 원자재가격을 급등시켰고, 이는 국내 실물경기를 급속히 냉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영세하여 경기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도내 중소기업들의 어음부도율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충남도는 「2009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에서 경제난 극복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경제란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2009년 현재, 충남도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판로·수출분야에서 총 6개 사업(약 9,400억원 규모)을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① 경영안정 자금지원, ② 기업회생자금지원, ③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도 정책자금 상환유예, ④ 영세소상공인 신용보증 확대, 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⑥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사업이며, 이 중 한시적 시행을 전제로 '경제란 극복을 위한 도 정책자금 상환유예' 지원만이 2009년에 신규로 시행되었고, 나머지는 2008년도에 이어 시행되는 지속사업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규사업은 단 하나에 지나지 않으나, 공공구매 촉진지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지원규모(사업비)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촉발 내지는 가중시킨 환율 및 원자재가 상승과 관련한 환위험 관리 및 원자재 구매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경영애로요인 해소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금변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를 고려한다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며, 또한 원자재 및 원유는 산유국의 분쟁, 가격담합, 투기적 수요증대 등에 의해서도 상시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실정이며, 환율 역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언제든 큰 폭으로

변동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급작스런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및 규모, 그리고 관련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충남도 차원에서 기존 지원의 사업규모를 확대·시행하는 것도 유용한 정책수단이나, 좀 더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 및 원자재 확보난을 경감하기 위한 관련 정책발굴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기존 지원사업의 탄력적 운용 및 제도적 보완

현행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회생절차는 과거 법정관리에 해당되는데, 동 절차는 해당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 가치보다 높고 갱생가망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된다. 다만, 기업회생절차 중에는 해당 기업이 기존에 받고 있던 각종 정책자금의 모두 끊기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법원의 판단아래 관련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경영상의 문제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 단기간에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금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침체 시에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더욱 절실하다.

관련하여 현재, 충남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기업회생자금」을 연간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동 자금을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일지라도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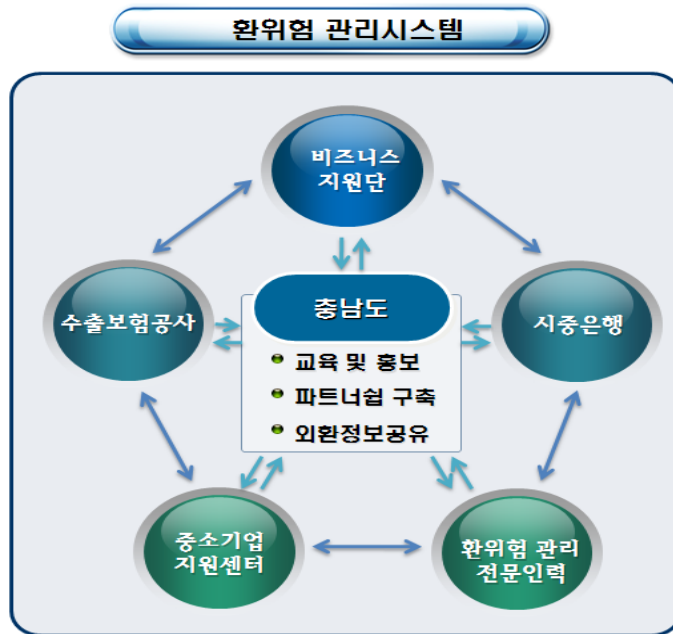
## 2. 환율변동성 및 원자재 확보난 개선방안

### 1) 환위험 관리 지원방안

#### (1) 환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대전·충남 중소기업청 산하의 「비즈니스지원단(2009년 3월 신설)」은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연계하고, 분야별 전문가(전문상담위원)를 상시 배치하여 온라인, 전화, 방문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종합상담하기 위한 기구이다. 비즈니스 지원단에서는

창업/벤처, 법무/규제, 금융/환위험관리, 인사/노무, 세무/회계, 경영일반, 기술/특허, 정보화, 생산관리, 마케팅/수출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5-1] 환위험 관리시스템

다만, 상담 전문가가 매일 4명씩 상주하여 총 10개 분야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상담만으로는 미흡할 경우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현장 클리닉’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위험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도 차원에서 환위험 관리 전문인력풀(Pool)을 구축하고, 수출보험공사, 시중은행, 중소기업지원센터, 비즈니스지원단과 연계한 환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2) U-환율 컨설팅 지원단 신설·운영

환율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측이 어렵다. 이러한 예측의 어려움을 중소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외부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외환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 및 외환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환율상승 시 수출 네고(nego)를 늦추고 (laging) 수입결제를 당기는(leading)시점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수출과 수입의 거래시점과 금액을 맞추어 그 차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환리스크를 헤지(hedge)하도록 한다. 다만, 환위험 헤지상품은 선물환 거래, 통화선물, 통화옵션, 통화스왑 등 매우 다양하나,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에는 비용측면이나 관련제도의 이해 등이 어려워 수출중소기업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해당 전문금융기관들이 헤지규모가 작은 영세수출중소기업들과의 거래를 꺼려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내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풀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U-환율컨설팅지원단(U-Exchange Rate Consulting Service Corps)을 구성하여 이메일, 전화, 팩스 등 on-off line상으로 수출중소기업의 환율관리 전반에 걸친 컨설팅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중소기업청 산하의 「비즈니스지원단」에서 환위험 관리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지원하되, 지원단의 규모와 지원시점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 (3)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수출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환변동 보험은 중소수출기업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환율변동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의 환율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증거금이나 담보제공 등의 부담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변동 보험 인수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수출중소기업의 유용한 환위험 헤지수단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은 환율의 변동에 기인한 환차손과 환차익을 낮은 비용으로 일정수준에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상 안정에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변동 보험은 비용측면에서 영세 및 중견 중소기업들이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선물환과 같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전체 응답기업 중 ‘환율상승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3.4%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환위험 관리를 하지 않거나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이 각각 76.9%, 9.5%에 이를 정도로 환위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처럼 매우 유용한 환헤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환변동 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않는 점은 환위험 관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 역시 중요한데, 첫째, 신용등급 개선을 위한 투명

성 및 자기자본 확충과 은행과의 관계유지가 요구된다. 즉,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자금경색 및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대출심사 강화에 대비한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정세는 환율 변동폭이 크므로 급격한 환율변동 위험해지를 위한 환변동보험을 적극 활용하되, 환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KIKO와 같이 위험성향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의 이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환포지션을 정확하게 도출해 적합한 헤지수단과 거래여부를 결정하고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부담을 통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셋째,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위축된 실물경기가 다소 되살아나는 국면이므로 기업 나름의 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축적인 재고 및 생산관리를 통한 비용절감노력이 요구된다.

<표 5-1> 주체별 환위험 관리방안

정부 및 유관기관	충남도	중소기업	시중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시장 변동성 안정화 개입</li> <li>· 금융지원 확대 및 모니터링</li> <li>· 맞춤형 환율교육 및 컨설팅 지원</li> <li>· 환위험관리 전문가 양성</li> <li>·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li> <li>- 환위험관리 전문인력풀 구축</li> <li>-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마련</li> <li>- U-환율컨설팅 지원단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사원 중심의 환율 교육 실시</li> <li>· 환변동보험 적극 활용</li> <li>· 신용등급 개선노력 (자기자본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동향 및 환위험 관리기법 공유</li> <li>· 대출심사기준 완화</li> <li>· 안정적 파생금융상품 개발</li> </ul>

## 2) 원자재 확보난 개선방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개별 중소기업들은 원가절감, 경영혁신, 생산성 제고, 제품가격 인상 등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최근의 원자재 가격급등은 국제적 투기수요 및 고환율, 유가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개별 중소기업이 감내하기에 너무 부담이 커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시장경제 및 경쟁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중점을 두되,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원자재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안정을 지원하고, 매점 매석 등 시장왜곡에 대한 감시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원자재 구매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관세인하 등을 통한 원자재 가격상승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원자재 가격변동이 합리적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입이 시급하다. 넷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부담 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 **(1) 원자재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원자재 공동구매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간 협력사업(협동화 사업)중에 원자재 공동구매의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원자재 수급난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충남도 차원에서 원자재 수급난이 심각할 경우, 한시적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업종별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원자재 공동구매를 위한 지원자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 지원**

원자재 수급난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61.8%가 원자재구매 대금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도 차원의 원자재 구매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청 등이 수출용 원부자재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과 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이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큰 실정이다. 따라서 원자재 수급난이 심각할 경우,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에 대한 특별 정책자금을 한시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거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3)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원자재 가격 및 수급상황, 도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원자재 수입에서 최종생산단계까지의 과정상 특정 생산단계로의 일방적인 가격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생산자간 협의체 구성 또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애로 등을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업종별 협의체구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5-2>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한 주체별 지원방안 및 역할

지원 주체	원자재 수급안정	원자재 구매부담 완화 (금융 및 세제지원)	납품단가 반영 현실화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축 원자재 방출규모 · 품목 확대(조달청)</li> <li>·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 정보시스템 구축(중기청)</li> <li>· 해외 자원확보 강화 및 장기공급계약 확대(기재부, 지경부, 외통부)</li> <li>· 주요 원자재 증장기 조달 계획 수립(지경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 지원확대(중기청)</li> <li>· 원자재 구매자금 보증 확대(기획재정부, 금융위)</li> <li>· 긴급할당과제인하(기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납품가격 현실화(기재부)</li> <li>· 민간 납품단가 합리적 반영유도(공정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지식경제부, 국세청)</li> </ul>
충남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재 공동구매 지원</li> <li>· 비상대책반 운영 및 원자재 수급실태 조사</li> <li>· 원자재구매 특별정책자금 · 저리융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별 협의회 구성 지원 (단계별 생산자가 협의회)</li> <li>· 업계 간담회 개최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점매석 감시강화</li> </ul>
중소 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 신축적인 생산 · 재고관리 · 전사적 사내비용 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별 협의회 참여 및 구두발주 지양</li> <li>·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적극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사례 적극 신고</li> </ul>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겪고 있는 환율 및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애로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장별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장 연구개요에 이어 제 2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요시장의 제 경제변수들에 끼친 영향이 다시 실물경기에 파급되는 전달경로를 기존이론과 관련 연구동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환율상승, 금리인상,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 요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에 포함한 국내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 3장에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동향을 분석한 결과, 해외 주요국들은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기극복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 및 개정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감세 및 보조금 지원 조치를 통한 내수기반 강화 및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양상이다. 아울러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구제금융으로 활용하는 한편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책자금 확대 및 세제지원, 금리인하 조치, 유동성 지원 등 중소기업에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행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충남 중소기업의 실물현황과 충남도의 경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실태,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설문조사 및 글로벌 금융위기가 충남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우선 실물경기 악화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대출금 상환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크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사정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충남의 어음부도율은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한편 경기극복을 위해 충청남도는 경영안정자금, 기업희생자금, 도정책자금의 한시적 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시행중이나, 중소기업 실물경기 악화의 주요 원인인 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관련

하여 도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은 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위험 관리지원 및 원자재 구매대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각 변수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먼저 금리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 충격 이후 1개월까지가 가장 컸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나, 7개월 이후에는 점차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충격 이후 1개월까지가 가장 컸으며, 10개월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와 나프타가격 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은 1개월까지가 가장 컸으며, 10개월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유연탄 가격 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은 3개월까지 계속 커지며, 10개월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5장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기존 지원사업 범위 및 규모, 그리고 지원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기존사업을 불합리한 제도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금번 경기침체의 주원인인 환율급등과 원자재 확보난을 도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환위험 관리를 위해 ①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한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② U-환율 컨설팅 지원단 신설·운영, ③ 환율관련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하였고, 원자재 확보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 원자재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②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 지원, ③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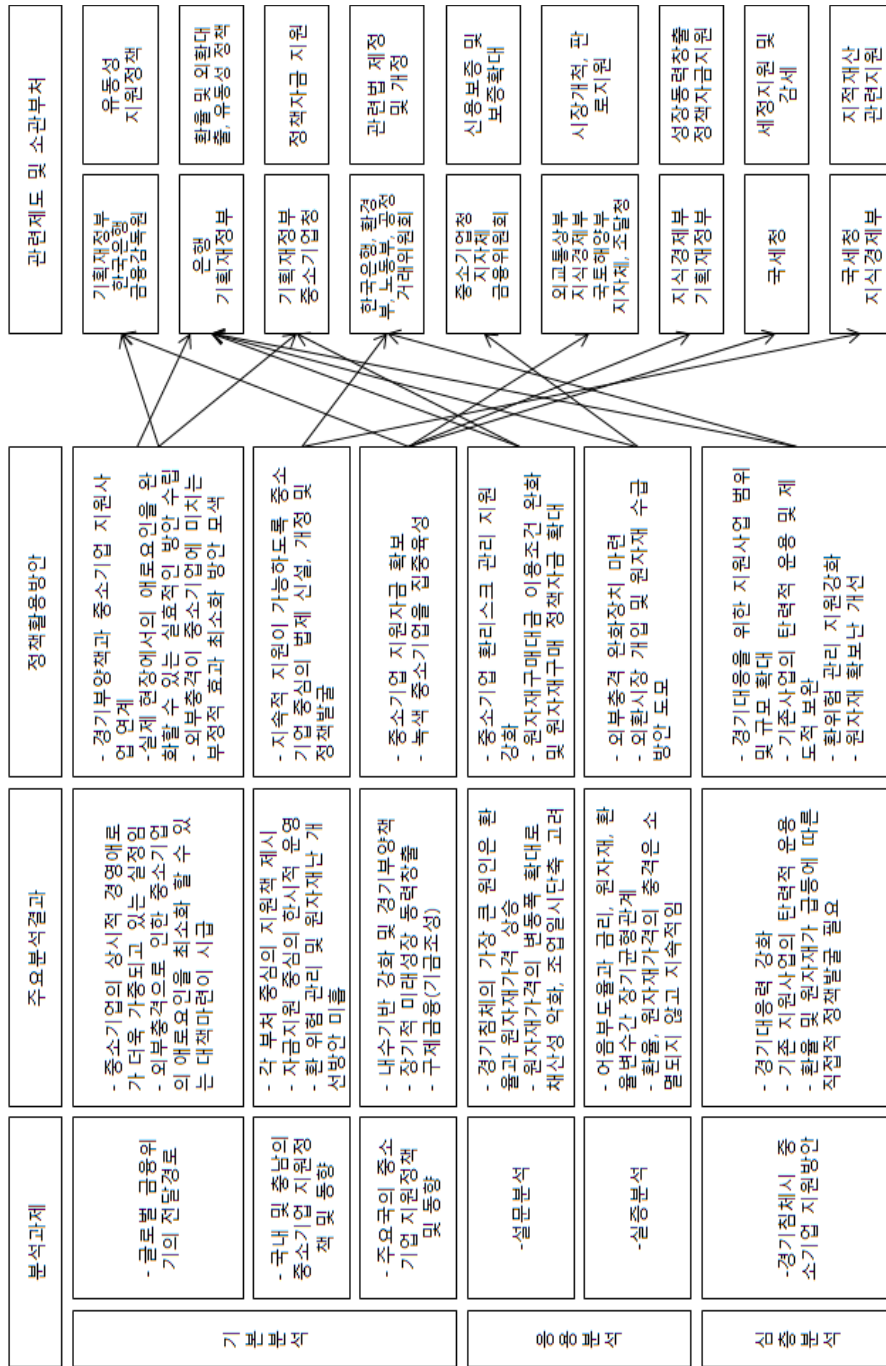
## 2. 정책제언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전 세계적 경기둔화(global recession)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충남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은 충남지역의 경제성장에 제약요인(binding constraint)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역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생산적 활력 및 외부충격에 대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만 한다. 관련하여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은 경기대응력이 취약하여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충격은 중소기업의 상시적인 경영애로

를 더욱 가중 시키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인해 환율,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일부 수출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내수중심의 중소기업 대부분은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경영난이 가중되어 부도의 위기로 내몰리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는 중소기업의 경기극복을 위해 경영애로해소 중심으로 시행되던 기존 지원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록 한시적이거나 지자체로는 최초로 '도 정책자금의 상환유예' 지원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도내 중소기업들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가 환율상승과 원자재가격 급등이 주원인이라는 점과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및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충남도 나름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환율과 원자재 가격변수의 통제(control)는 국가정책영역이므로 지자체 차원의 통제가 원천불가하다. 따라서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개입과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 합당하나, 충남도 차원에서도 국가시책과 연계하거나 나름의 시책을 강구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환 위험관리를 위해 외환 전문가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환율 컨설팅을 해주거나, 환변동 보험과 같은 유용한 환헤지 수단을 수출보험공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홍보하는 일, 그리고 원자재 확보난 완화차원에서 업종별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일 등은 도차원에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다.

끝으로 기업회생제도의 사례에서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충남도가 운용하고 있는 기업회생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존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할만 하다.



[그림 6-1] 경기침체극복을 위한 충남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정책적 활용방안



안녕하십니까?

저희 충청남도 기업지원과와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바탕으로 기업의 요구에 맞는 정책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경제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무기명 방식으로 통계 처리하여 오로지 연구목적에만 사용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7월  
충남발전연구원 김 용 웅 드림

문의 : 책임연구원 신 동 호  
TEL: 041-840-1133  
FAX: 041-840-1189

### 경제침체의 심각성

1. 귀하께서는 경제침체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  
하지 않음

←-----→

매우  
심각함

① ② ③ ④ ⑤

2. 경기침체가 귀사의 경영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심각  
하지 않음

←-----→

매우  
심각함

① ② ③ ④ ⑤

3. 경기침체가 경영애로에 영향을 미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업외적요인 ② 기업내적요인 ③ 우발적요인

3-1. 기업내적요인의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되십니까?

① 기업간과다경쟁 ② 출혈판매  
③ 수요패턴변화 ④ 환율/원자재가격 상승  
⑤ 정부지원정책 비현실성 ⑥ 내수위축

3-2. 기업내적요인의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되십니까?

4. 귀사의 경기침체 원인은 다음 중 어느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 분	전혀 없음	←-----→	매우 많음
자금조달	①	②	③ ④ ⑤
인력수급	①	②	③ ④ ⑤
제품판매	①	②	③ ④ ⑤
기술개발	①	②	③ ④ ⑤
원자재구매	①	②	③ ④ ⑤
기타	①	②	③ ④ ⑤

5. 귀사가 경영애로를 겪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영마인드 ② 근로자비협조  
③ 정부규제 ④ 금융비용  
⑤ 간접비용 ⑥ 불공정 경쟁  
⑦ 경영환경 변화 ⑧ 기타( )

6. 귀사의 경영에 미치는 경제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원자재가격 ② 인건비  
③ 환율 ④ 금리  
⑤ 기타

7. 향후 경제여건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① 판매부진(수출 및 내수)      ② 판매대금회수지연
- ③ 거래기업 및 관련기업 도산      ④ 투자실패(과잉설비투자)
- ⑤ 적자누적      ⑥ 재무관리실패
- ⑦ 환경변화 대응능력 부족      ⑧ 금융기관 이용곤란
- ⑨ 마케팅능력부족      ⑩ 노사갈등

전혀나아 지지 않음	←-----→	나아질 것임
①	②      ③      ④	⑤

### 고환율에 따른 애로사항

1. 귀사의 최근 고환율에 따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현재히 악화	←-----→	매우 좋아짐
①	②      ③      ④	⑤

2. 최근 고환율을 대응함에 있어 겪는 가장 큰 애로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환율변화에 대한 정보부족
- ② 외환위험 분산에 대한 대응미흡
- ③ 기술개발 및 품질수준 향상의 한계
- ④ 수입 및 수출시장 다변화의 어려움
- ⑤ 기타(\_\_\_\_\_)

3. 향후 고환율 추세가 지속될 경우 귀사가 겪을 가장 큰 애로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출물량 감소      ② 가격경쟁력 유지곤란
- ③ 수출단가 인하요구      ④ 수입원부자재가격 급등
- ⑤ 은행의 외화대출 중단      ⑥ 환차손 및 환평가손실 확대

4. 귀사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실시해오고 있음
- ② 전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③ 환위험관리에 대해 알지 못함
- ④ 향후 실시할 계획임
- ⑤ 기타(\_\_\_\_\_)

5. 고환율이 수출채산성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수입 원부자재 구입비용 증가로 환율상승효과 상쇄
- ② 환율 인상분에 대한 수출단가 인하요구로 수출마진 축소
- ③ 기존 외화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 상환부담 증가

### 원자재 구매시 애로사항

1. 귀사의 최근 원자재 수급 사정은 어떠합니까?

매우 어려움	←-----→	매우 원활함
①	②      ③      ④	⑤

2. 귀사의 주요 원자재 매입처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 ① 해외조달(수입)      ② 대기업
- ③ 중소기업      ④ 협동조합(공동구매)
- ⑤ 대리점, 도매업체      ⑥ 자체생산

3. 최근 귀사의 주요 원자재 가격은 전년대비 어느 정도 변동(증감)하였습니까??  
( \_\_\_\_\_ %) 감소의 경우(-)표시

4. 원자재 수급난으로 겪는 귀사의 애로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공장가동을 저하      ② 채산성 악화
- ③ 경영난 악화      ④ 납품기일 지연
- ⑤ 기타(\_\_\_\_\_)

5. 원자재 수급난이 계속될 경우 귀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① 조업 일시 단축      ② 조업 일시 중단
- ③ 사업청산      ④ 해외이전
- ⑤ 기타(\_\_\_\_\_)

6. 원자재 수급관련 지원요망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조달청 비축물량의 중소기업 우선 판매
- ② 대기업 납품단가의 적정화
- ③ 인위적 수급조절에 대한 지도강화
- ④ 원자재 구매자금 이용조건 완화(저리융자 지원)
- ⑤ 수입원자재 관세 인하품목 확대
- ⑥ 대기업보유원자재의 중소기업 배정물량 확대
- ⑦ 수입신용장개설지원
- ⑧ 원자재 공동구매 활성화
- ⑨ 원자재 구매 정보망 구축 및 홍보
- ⑩ 기타(\_\_\_\_\_)



※ 설문조사지에 의한 응답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기탄없이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참고문헌

- 김명직 · 장국현, “금융시계열분석”, 경문사, 2001.
- 김번욱, “IMF 관리체제하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인천발전연구원, 1998.9.
- 김화년, “최근 원자재 가격 급변동의 원인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8.9.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위기 극복 국민대토론회, 2008.10.
- 박재필, “환율변동에 대비한 수출중소기업의 대응책”, 중소기업연구원, 2005.4.
- 송치승,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현황분석과 중소기업금융의 정책제언”, 중소기업연구원, 2008.11.
- 송치승, 최은주, Diamond Fund와 ARS 사건 해결사례가 KIKO에 주는 시사점분석, 중소기업연구원, KOSBI ISSUE PAPER, 제47호, 2008.10.
- 원희연, “IMF시대 부산시 중소기업지원자금운용의 개선방안”, 부산발전연구원, 1998.6.
- 이종원, “계량경제학”, 박영사, 1995.
- 이지훈, “원자재가격의 급등원인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원, 2008.4.
- 이창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및 정책적 대응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8.11.
- 이창민 · 권선윤 · 우제현, “월간 KOSBI 경제동향”, 중소기업연구원, 2009.3.
- 장재철,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008.10.
- 정남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원, 2008.9.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금융발전, 2007.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성장발전 애로요인 조사보고서”, 2000.
- 충청남도 2008, 2009 중소기업 육성계획.
- 홍성철(2008),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의 원인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Damodar N. Gujarati, “Basic Econometrics”, McGR-HILL, 1995.
- Clau M. and S. S. Fung(2006), " The New BIS Effective Exchange Rate Indices", BIS
- Oum, B. and D. Cho.(1995), " Korea's Exchange Rate Movement in the 1990s: E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KDI
- Philips, T. and Jozef(1993), “Measuring international price and cost competitiveness”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신동호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공동연구 : 김세종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2009-13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남 중소기업 지원방안

글쓴이 · 신동호, 김세종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9년 12월 31일 / 발행 · 2009년 12월 31일

주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133(직통), 041-820-1114(대표) / 팩스 · 041-820-1129

ISBN · 978-89-6124-101-4 03350

<http://www.cdi.re.kr>

©2009.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